2021년 상반기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적질학회 2021년 상반기 학술대회

통일인식과 다문화 수용도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질

- 일시 : 2021년 6월 4일 (금), 14:00~18:30
- 참여 : Zoom 웨비나(Webinar)
- 주최 : 한국사회적질학회

한국사회적질학회

Korean Association on Social Quality

한국사회적질학회 2021년 상반기 학술대회

[세부일정]

▸일시 : 2021년 6월 4일 (금), 14:00~18:30

▸참여 : Zoom 웨비나(Webinar)

제1부 학술대회 | 통일인식과 다문화 수용도를 통해 본 한국 사회의 질 [14:00-16:50]

시간	구분	내용
14:00~14:10	개회선언 및 인사말	• 엄재근 (한국사회적질학회 회장 / 덕성여대)
14:10~14:20	휴 식	
14:20~14:50	주제발표 1	**대학생의 통일인식 조사를 통해 본 통일 문학교육의 필요성** • 발표 : 하채현 (우석대 교양대학) • 토론 : 조경덕 (평택대 피어선칼리지) • 사회 : 송시형 (국제사이버대 엔터테인먼트학과)
14:50~15:00	휴 식	
15:00~15:30	주제발표 2	**다문화 청소년의 내·외적 자원, 사회적 위축, 우울 간의 관련성 연구** • 발표 : 천지은 (중부대 학생성장교육혁신원), 박지선 (우송대 사회복지학과) • 토론 : 박범기 (서울사회복지대학원 평생교육원) • 사회 : 송시형 (국제사이버대 엔터테인먼트학과)
15:30~15:40	휴 식	
15:40~16:10	자유발표	**기본소득 논쟁, '다른 관점'에서 보기 : 복지개혁의 정치학** • 발표 : 박보영 (극동대 사회복지학과) • 토론 : 서경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사회 : 송시형 (국제사이버대 엔터테인먼트학과)
16:10~16:20	휴 식	
16:20~16:50	종합토론 및 폐회선언	• 엄재근 (한국사회적질학회 회장 / 덕성여대)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16:50-17:40]

• 진행 : 박보영 (한국사회적질학회 연구윤리위원장 겸 편집위원장)

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관련 자료집 소개
2.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3. 한국연구재단 KCI 인용정보검색 및 <KCI 인용지수> 안내

제3부 총회 [17:40-18:30]

• 의장 : 엄재근(한국사회적질학회 회장)

• 사회 : 박보영(한국사회적질학회 이사)

1. 성원보고_ 이사 박보영
2. 제5차 총회 개회선언_ 의장 엄재근
3. 의장 인사말_ 의장 엄재근
4. 학회활동 보고_ 이사 박범기
5. 안건 심의 및 의결_ 의장 엄재근 / 이사 박범기
   - 제1호 안건 : 한국연구재단 2021 학술지평가사업 현황 보고
   - 제2호 안건 : 2021년 상반기 사업 및 현안 보고
   - 제3호 안건 : 기타
6. 기타 안건 토의_ 의장 엄재근
7. 폐회선언_ 의장 엄재근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으로만 진행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목 차]

2021년 상반기 학술대회 프로그램 안내

제1부 학술대회 | 통일인식과 다문화 수용도를 통해 본 한국 사회의 질

❑ 주제발표 1

대학생의 통일인식 조사를 통해 본 통일 문학교육의 필요성 ····· 7

▸발표 : 하채현 (우석대학교)

▸토론 : 조경덕 (평택대학교)

❑ 주제발표 2

다문화 청소년의 내·외적 자원, 사회적 위축, 우울 간의 관련성 연구 ····· 27

▸발표 : 천지은 (중부대학교 학생성장교육혁신원), 박지선 (우송대학교)

▸토론 : 박범기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 자유발표

기본소득 논쟁, '다른 관점'에서 보기 : 복지개혁의 정치학 ····· 45

▸발표 : 박보영 (극동대학교)

▸토론 : 서경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관련 자료집 소개 ····· 59

2.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 63

3. 한국연구재단 KCI 인용정보검색 및 <KCI 인용지수> 안내 ····· 65

제1부 학술대회

논문발표

통일인식과 다문화 수용도를 통해 본 한국 사회의 질

[주제발표 1]

대학생의 통일인식 조사를 통해 본 통일 문학교육의 필요성

- 하채현 (우석대학교)

[주제발표 2]

다문화 청소년의 내·외적 자원, 사회적 위축, 우울 간의 관련성 연구

- 천지은 (중부대학교 학생성장교육혁신원), 박지선 (우송대학교)

[자유발표]

기본소득 논쟁, '다른 관점'에서 보기 : 복지개혁의 정치학

- 박보영 (극동대학교)

한국사회적질학회 2021년 상반기 학술대회(2021.6.4)
통일인식과 다문화 수용도를 통해 본 한국 사회의 질
제1부 학술대회 **주제발표_ 발표 01**

대학생의 통일인식 조사를 통해 본 통일 문학교육의 필요성

하채현
(우석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Ⅰ. 서 론

이 연구는 통일 문학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써 대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확인한 것이다. 대학생의 글쓰기 수업에서 실제 분단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벌인 자리에서 현재 대학생들에게 통일 문학이 절실하다는 통찰로부터 본 연구가 촉발되었다. 특히 본고는 북한 사회와 북한 정치 경제가 아닌 북한 문학에 대한 교육적 활용에 집중할 것이다.

대학생들에게 북한 경제나 북한 정치에 대한 이해는 사회체제, 국제관계 등 넘어야 할 이론적 함의가 많은 편이지만 북한 문학은 다른 측면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선 북한 문학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한에서 쓰는 한국어로 집필되었다. 둘째, 문학이라는 것이 거대 담론보다는 일상의 속살을 조근 조근 이야기하는 사람살이를 담아서 학습자 접근성이 좋다. 셋째, 문학에는 동시대의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어서 학습자를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에 도달하도록 하기에 좋다.

사회체제와 국제관계가 북한 문학에 들어있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미시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문학의 속성으로 인해서 통일 문학은 교육적 자장의 효율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그동안 통일 문학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의를 다듬어 왔다. 본고는 이러한 통일 문학 논쟁에 힘입어 앞으로 통일 교육 실천의 한 측면으로써 통일 문학의 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도를 지식, 인식, 태도로 나누어 살피고 이 과정에서 대학생들과 실행한 분단에 관한 토론 내용을 논의에 포함하여 통일 문학 시대를 열기 위한 시론(試論)이 되고자 한다.

II. 연구 배경

통일교육이나 통일 문학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 그 중 김미영(2015, 2016)의 논의가 특히 주목된다. 김미영(2016)은 통일한국을 위한 문학교육의 방향을 그동안 조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이해 차원의 문학교육과 소통·통합 차원의 문학교육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 중 이해 차원에 해당하며 북한 문학의 지속적인 소개의 필요성에 논의를 붙이는 작업으로 수행되었다. 그 전에 김미영(2015)은 2012 문학 교육과정 현대소설 제재를 정리하여 통일 문학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통일 문학교육에 대한 논의는 양정임(2018)과 최홍원(2019)로 이어졌는데 전자는 공감교육, 연합 수업, 찾아가는 교실 등을 제안하였고, 후자는 동질성보다는 이질성을 확인하고 이를 극복할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밖에 북한의 국어교육이나 북한 문학(소설)을 소개하는 연구가 있다. 북한 소설에 대해 소개를 받을 수 있는 연구들은 최민(2020), 정영선(2018), 오창은(2018), 오태호(2018), 조경덕(2013) 등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이들 연구는 북한 문학을 기준에 따라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선문학』에 게재된 작품만을 다룬달지, 통일 주제나 환경 담론을 다룬달지, 남북한 문학의 소통 부분을 다루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전체 한국 문학사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로부터 본고는 북한과 통일에 대한 최근 대학생의 인식에 기초하여 통일과 북한 문제의 쟁점이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존 연구 성과에 논의를 보태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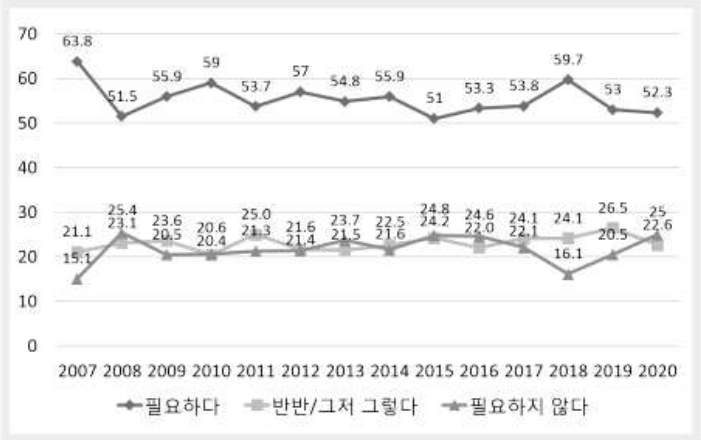
북한의 국어교육 연구는 변경가·권순희(2018), 정진석(2018), 권순희(2018) 등이 있으며, 이후 국제 정세에 맞춰 '남북한 공통국어' 교과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이상일, 2020; 최미숙, 2020). 특히 이상일(2020: 269)에서는 언어활동 수행을 강조하여 남북한 언어문화에 대한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에 문학교육이 집중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은 여전히 남북한 공통국어 내용 선정과 교육 체계 논의가 가설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게 하는 대목이다. 북한의 국어과 교육에 대한 논의는 남한의 국어과 교육과 같은 부분과 다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통일 문학교육 관련 연구 성과 속에서 이 연구는 실제 대학생의 인식을 조사하여 그 안에서 쟁점을 발견하고 필요성과 활용을 고민한다는 점에서 앞선 연구와 구별된다.

국민의 통일 인식 조사 결과는 매년 보고서로 제출되고 있다.[1] 여기에는 연령별 통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대학생을 특화한 통계는 발견하지 못했다. 국가 미래 주역인 20대 대학생은 대부분 제도권 교육을 받고 최고 학령에 이른 갓 성인이 된 사람들[2]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글에

1)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원에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그 밖에 다른 기관들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대학생은 성인이면서 동시에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청소년'이기도 하다. 청소년보호법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청소

서 대학생의 인식에 주목한 이유는 대학생이 성인이면서 동시에 교육을 받는 학습자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일종의 교육 논의이므로 통일을 바라보는 대학생의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고자 한다.



자료 : 통일교육센터

〈그림 1〉 통일 필요성에 대한 세대별 인식 (단위: %)

위 조사에 따르면 19~29세 연령대에서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와 "약간 필요하다"를 합한 응답자 비중은 2018년 54.1%에서 2019년 41.1%, 2020년 35.3%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반면에 "별로 필요하지 않다"와 "전혀 필요하지 않다"를 합한 비중은 2018년 17.6%에서 2019년 25.3%, 2020년 35.3%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일연구원, 2021: 34). 20대는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결과다. 왜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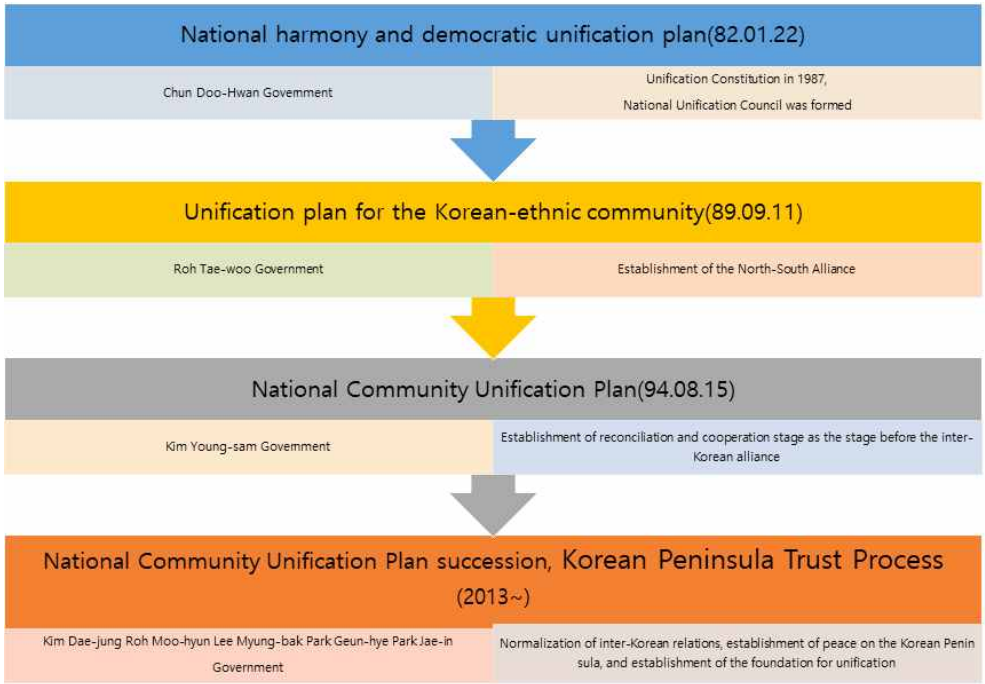
통일 관련 토론 수업에서 한 1학년 학생이 '요즘 들어서는 "통일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생각이 든다. 두 나라의 경제적 차이로 인해 통일 후 분명 남한이 손해를 볼 텐데 그냥 종전 상태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3]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에 동의하는 학생들이 발언하기 시작했다.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한 의견을 가진 대학생이 많았다. 예를 들어, '통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못 박는가 하면 '누구를 위한 통일인가?', '통일의 필요성은 못 느끼겠다. 굳이' 등의 입장을 내보인 대학생도 있었다. 정말 놀라운 답변은 '관심 없음'이나 '생각 없음'이었다.[4] 이 때문에 본고는 20대에 해당하는 대학생을 특화하여 통일

년기본법에는 9세에서 24세 사이의 사람을 청소년으로 본다.

3) 이 말은 설문 문항 자유 서술에서도 발견되었으며 활동지에서도 같은 의견을 가진 대학생들이 있었음을 밝힌다.

4) 물론 통일에 대해 알 수 있는 매체가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나 서두르기보다는 건강한 통일을

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다.



자료: 통일부 및 통일교육원

〈그림 2〉 통일방안의 변화

위에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1994년에 공포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계승하여 통일 정책을 다듬어가고 있다. 통일 방안 변천 과정을 보면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학교육 논의에서도 이질성을 확인하여 극복 테제를 논의(최홍원, 2019)하기도 하였다. 큰 틀에서는 통일 교육의 문제점을 거론하기 어렵다. 이에 대학생에 한정하여 인식 조사를 살펴보고 이어서 문학교육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Ⅲ. 대학생의 통일과 북한 인식 조사

대학생의 인식 조사는 K대학 재학 중인 2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5] 앞에서 밝혔듯이 응답 대학생들은 수업에서 통일 관련 논의에 참여한 바 있다. 연구자는 설문 문항을 각각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없지 않았다.
5) 설문지는 부록 참조.

'북한' 과 '통일' 6문항씩 12문항으로 질문했으며 이에 대한 대학생의 응답을 빈도 분석했다. 설문에 참여한 학년과 학생 수는 다음과 같다.

〈표 1〉 통일 필요성에 대한 세대별 응답

Grade	1st Grade		2nd Grade		3rd Grade		4th Grade		All grades	
Number of students by grade (persons)	179		33		11		9		232	
Gender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Number of students by gender (persons)	113	66	14	19	5	6	3	6	135	97

모든 학년은 232명이며 1학년 응답자가 절반 이상이다. 성별은 대체로 균등하다.

문항은 연구자가 학생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수집하여 작성했다. 문항에 포함된 주요한 문제의식은 우리가 북한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북한은 새로운 관광산업국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폐쇄성에 있다. 김일성대학 출신 한 독일인의 증언에 따르면 2018년 북한 서적을 베를린에서 출판하자 방문 비자를 거부당했다고 한다.[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행정구역, 국가의 정식 명칭, 국가 최고 지도자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혹은 관심 여부, 방문을 원하는지, 관련 보도자료를 검색하는지 등을 문항으로 개발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통일을 위한 남북교류, 통일부, 통일 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혹은 관심 여부, 화제, 독서 여부를 문항으로 개발했다.[7)]

이에 더하여 20대 대학생들은 군대와 연관하여 북한을 주적(主的 주요 목표물)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반공의식, 분단비용 등도 확인하고자 설문과 별도로 개별 활동지를 배포하고 수거하여 연구에 참조하였다.[8)]

1. 대학생의 통일 '정보' 분석

6) 방북 비자를 거부당한 독일인은 뤼디거 프랑크이다. 그는 1991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북한을 드나들며 기록한 자신의 책을 북한에 관한 직접적인 탐사보고서라고 소개했으며 이 책은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북한여행』(2019) 참조.

7) 문항 개발에 '관심 여부'를 넣은 이유는 관심이 없거나 생각해 보지 않은 대학생이 의외로 많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8) 통일 관련 활동지 부록 참조.

이 글에서 인식은 '정보' 와 '관심' 두 가지 체계로 구분했다. 여기서 정보(information)는 주체를 제외하고 인지하고 있음,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관심(concern)은 정보 있음에 더하여 주체적인 실행을 포함했다. '관심' 은 주의를 끌어 주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앎(knowledge)에 해당한다. 이 글에서 대학생의 통일 인식을 다루는 '정보' 는 본인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물어 빈도 처리했다.

1) 대학생의 통일 정보

대학생들의 인지 정도를 알기 위해서 남북교류, 통일부, 통일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물었다.

〈표 2〉 통일 관련 사안에 대한 인지

Division	Inter-Korean exchange		Ministry of Unification		Unification policy	
	Respondent	%	Respondent	%	Respondent	%
Know	18	8.2	36	16.4	132	60.3
Do not know	202	91.8	184	83.6	87	39.7
Sum	220	100.0	220	100.0	219	100.0

대학생들의 통일 인식에서는 '통일 정책(60.3%) 〉 통일부(16.4%) 〉 남북교류(8.2%)' 로 나타났다. 통일 정책에 대해서는 들어 봤지만 남북교류에 대해서는 둔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통일이라는 키워드는 미디어에 노출되어 대학생에게 익숙한 듯하다. 반면에 남북교류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대학생의 북한 정보

〈표 3〉 북한 정보에 대한 인지

Division	North Korea Geography		North Korean country name		Name of the Chairman of the North Korean State Council	
	Respondent	%	Respondent	%	Respondent	%
Know	58	25.0	167	72.0	222	96.5
Do not know	174	75.0	65	28.0	8	3.5
Sum	232	100.0	232	100.0	230	100.0

대학생들의 북한 인식에서 '알고 있다' 라고 응답한 순서는 다음과 같다. 북한 정상 명칭(95.5%) 〉 북한국가 명칭(72.0%) 〉 북한지리(25.0%)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학생들은 국무위원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그러나 북한 각 지역 정보에 둔감한 것으로 나타났다.[9] 이는 북한의 실상, 사람들의 생활, 그 외의 구체 상에 대해서 막연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2. 대학생의 통일 '관심' 분석

1) 통일과 북한 관심도

대학생들이 통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부정적인 관심과 긍정적인 관심을 포괄한다.

〈표 4〉 관심의 정도

No.	Division / Answer	North Koera		Union	
		Respondent	%	Respondent	%
1	Concern	98	42.2	183	83.2
2	Unconcern	134	57.8	37	16.8
Sum		232	100.0	220	100.0

북한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42.2%로, 통일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83.2%로 나타났다. 북한보다 통일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2배로 높았다. 통일 관심에서 무응답이 있다. 학년별로 볼 때 1학년 8명, 2학년 4명, 4학년 1명 무응답이다. 관심 여부에 대한 성별 분석은 아래와 같다.

〈표 5〉 성별에 따른 관심의 정도

No.	Division / Answer	North Korea		Union	
		Female student	Male student	Female student	Male student
1	Concern	66	32	116	67
2	Unconcern	69	65	15	22
Sum		135	97	131	89

9) 돌이켜보면 5차 교육과정기에 고등학교에 다닌 연구자 본인은 학교에서 사회 시간에 북한 지도를 놓고 배우지 않았다.

북한에 관심이 적은 남학생 그룹(32명)이 통일에 관심(67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입대 등 군대와 관련하여 남학생들이 직면한 문제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학생들은 북한보다 통일을 자신이 직면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통일과 북한에 대한 실천 의지

다음은 통일 실천 의지와 북한 방문 의지 등을 물어 응답을 분석했다. 통일을 화젯거리로 삼는다는 것은 관심의 표명이자 실천 가능성을 의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일 관련 자료를 찾아보는 일도 실천과 연관될 수 있다. 현재 우리의 교육 상황에서 통일 관련 교과 연계가 많지 않으므로[10] 더 의미를 지니는 설문이었다.

〈표 6〉 통일 실천 의지

Division	Unification topic		Unification data	
	Respondent	%	Respondent	%
Have	142	64.5	80	36.4
None	78	35.5	140	63.6
Sum	220	100.0	220	100.0

통일 실천 의지에서는 통일 화제(64.5%) 〉 통일 자료(36.4%)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은 미디어에 노출된 통일을 화젯거리로 삼았다. 그러나 이를 심화하여 통일 관련 자료를 찾거나 책을 읽는 일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북한 방문 의지

Division	North Korea visit		North Korea search	
	Respondent	%	Respondent	%
Do	135	58.2	121	52.2
Do not	97	41.8	111	47.8
Sum	232	100.0	232	100.0

북한 방문 의지에서는 '북한 방문(58.2%) 〉 북한 검색(52.2%)'으로 나타났다. 북한에 가보고

10) 통일교육원에서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싶고 북한 보도에 민감한 대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은 최근 금강산 여행이나 개성공단으로 인해 북한 관련 경제적 상황과 국제적 이슈에 관심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통일 주제 북한 소설의 양상과 교육적 활용

2012 고시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문학 교과서에서[11] 통일교육과 관련된 현대소설은 최인훈의 〈광장〉, 윤흥길의 〈장마〉, 림종상의 〈쇠찌르레기〉, 홍명진의 〈우주비행〉등 모두 4편이다. 이는 문학 교과서 수록 소설 180여 편 중에서는 매우 미약한 선정이다(김미영, 2015:63).[12]

여기서는 림종상의 「쇠찌르레기」를 표제작으로 한 『북한우수단편선1』(살림터, 1993)에 있는 통일 소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책에는 총 11편의 단편이 들어있는데 그중 다섯 편은 통일 주제 소설이라 지칭하였다.[13] 이 글에서는 남한 대학생의 통일 인식과 연계하여 북한 사회를 반영하는 소설 중 통일 주제 소설을 가지고 그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앞에서 분석한 결과, 북한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에 비해서 북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일상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14] 따라서 여기서는 첫째, 북한 사람들이 구체적인 일상이 담긴 소설, 둘째, 통일을 주제로 하는 소설, 셋째, 남북한 지리 정보를 담고 있는 소설. 이러한 세 가지 선정 기준으로 「쇠찌르레기」와 「림진강」을 논의에 올리려고 한다.[15] 이 글에서는 북한 소설을 검토함으로써 북한 사람들의 일상과 사회를 들여다보고 그 교육적 활용을 긍정적으로 모색할 기초로 삼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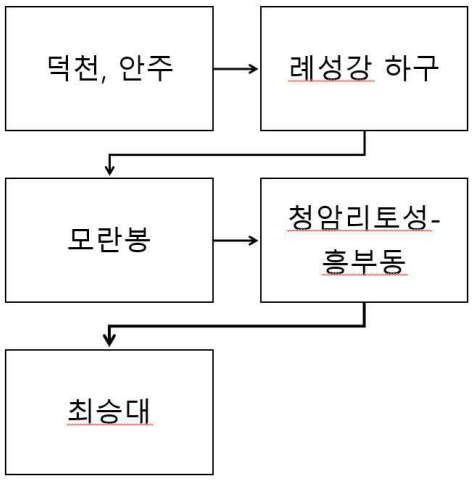
1. 북한 통일 소설의 양상(樣相)

1) 북한의 지역명

11) 여기서는 2012 고시 교육과정에 따른 문학 교과서를 살핀다. 2015 고시 교육과정이 공포되었으나 아직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개발은 완료되지 않았다.
12) 전체 소설 수록은 외국소설까지 포함하여 180여편에 이른다. 그 중 4편이라면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기에 미약하다고 말할 수 있다.
13) 『쇠찌르레기』에 담긴 11편은 '1. 쇠찌르레기 2. 산제비 3. 우리 선생님 4. 그를 알기까지 5. 임진강 6. 열쇠 7. 고향의 모습 8. 칼도마소리 9. 마감사람들 10. 인간의 수업 11. 기다리는 마음'이다. 이 책의 해설에서 정도상은 이 작품들을 통일 소설, 북한 일상 소설, 교육 소설 세 부류로 구분했다. 통일 소설은 이 책의 해설에서 해설자가 붙인 구분으로 정확히는 통일 주제 소설이라 할 수 있다.
14) 대학생들이 북한지리에 대한 정보를 거의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해석에 이르렀다.
15) 두 작품의 인용 출처는 살림터(1993)에서 출간한 북한우수단편선 1이다. 본래 「쇠찌르레기」는 『조선문학』에 「쇠찌르러기」라는 제목으로 1990년 3월호에 발표된 것이다.

여기서 다루는 지역명은 소설에 드러난 부분에 한정한다. 「쇠찌르레기」는 조류학자 집안 이야기다. 기자 출신의 작가인 화자가 조류학자 '원창운' 의 서재에서 밤을 새우게 된 사연을 적었는데 그것이 「쇠찌르레기」 서사의 주된 줄기다.

「쇠찌르레기」에 대해서 가족 상봉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이산(離散)가족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최민, 2020: 92). 그 밖에 「쇠찌르레기」에는 조류 현장 연구가 들어있어 풍부한 북한의 지리 정보가 담겨 있다. 작품 속 이동 경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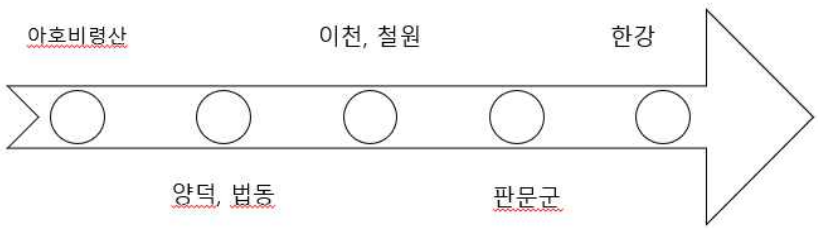


〈그림 3〉 새의 발견 장소

조류학자 원홍길이 덕천, 안주 일대에서 교장직을 맡았다가 조류학계에 명성을 떨치면서 종합대학 교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례성강 하구는 조류 서식지로 원홍길이 흰두루미 떼를 따라 이동하다가 분계선이 가로막아 더 새 떼를 따라가지 못한 곳이다. 모란봉과 청암리토성과 최승대는 모여 있으며 조류 연구를 위해서 인공 둥지를 원홍길이 직접 설치해 둔 곳이다.

> "제 나라 제 땅을 밟고 제 고장에서 살고 있는 새를 보러 가야 하는 데 분계선이 무엇이기에 내 앞길을 막는단 말이냐!"
> 가슴을 어여내는 듯한 비분이 그 어떤 악조건 앞에서도 꺾이우지 않고 한평생 새를 따라 다니던 교수를 그만 절망에 빠뜨려 놓았던 것이다.
> 창운은 분렬의 비극을 통절히 절감하며 몸무림치는 할아버지를 넋 잃은 사람마냥 얼없이 내려다보았다.
> "아, 비통쿠나. 국경 없이 나드는 새가 나를 부르고 있는데 조류학자인 내가……." (「쇠찌르레기」, p.21.)

「림진강」은 다섯 살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아픈 아들을 데리고 림강 나루를 거쳐 강을 건넌 남편을 기다리는 '성녀'의 이야기다. 남편은 아들 병을 고쳤으나 찬 강물에 차마 오지 못하고 혼자 집에 다녀갔고 그때 둘째 아이 '숙희'를 얻었다. 시간이 흘러[16] 결혼한 딸 숙희가 독거노인이 된 어머니를 도시로 모셔오기 위해서 찾아가는 장면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작품 속 림강의 흐름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림진강의 흐름도

아호비령산에서 양덕과 법동을 거쳐 이천과 철원으로, 다시 북쪽으로 판문군에 닿아 한강으로 합류되는 림강은 분계선과 무관하다. 인간은 분계선에 막혀 드나들 수 없지만 야속하게도 자연(강)은 혈류를 따라 끊임없이 흐른다. 이에 임진강 나루터를 떠나지 못하는 '성녀'의 마음은 통일 염원뿐이다.

> "그렇게 될 날이 멀지 않아. 왜 그런지 요즘 나는 서른여섯 해 동안을 애타게 기다려온 통일의 그날이 하루하루 앞당겨지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 너도 방송에서랑 들어 알겠지만 저 남쪽에서 문익환 목사랑 황석영 분이랑 우리 북반부를 다녀가지 않았니. 그리구 어린 처녀인 림수경이와 문규현 신부도 통일을 위해 평양에 왔다가 통일을 위해 돌아갔지, 장벽이라던 군사분계선을 걸어 지나서 말이다. 그들 모두 조국해방 쉰 돐이 되는 해까지는 기어코 나라를 통일하고 분단 빈족의 슬픔을 끝장내자고 하였지. 민심은 천심이라구 통일의 날은 반드시 온다." (「림진강」, p.115.)

2) 북한 사람들의 일상 속 통일 : '통일양수장'과 '조선조류지'

두 작품에 흐르는 공통된 담론은 인간과 자연의 대비에서 온다. 인간은 인위적인 분계선에 의

16) 분단 시기와 작품 발표 시기를 고려하면 약 45년이 흘렀다.

하여 막혔을지라도 자연은 그 인위를 모른다. 새떼는 분계선과 상관없이 날아오르고 강물은 분계선이 있든 말든 물길에 따라 유연히 흘러간다. 작품 속 인물들은 자연을 보고 통일을 감지하여 앞날을 준비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림진강」에는 양수 시설 이야기가 나온다. 공화국 정부 시책에 따라 관개공사를 벌리던 해에 련천으로 굽어드는 곳에 양수기를 설치하게 된다. 사람들은 림강벌과 잇닿은 련천벌을 걱정한다. 분계선이 막히기 전에는 강이 하나이듯이 벌도 하나였고 수로도 하나였기 때문이다. 분계선 이쪽 사람들만 생각하기보다는 이웃 농부를 헤아려 양수장을 넓게 파고 능력이 배가 되는 양수기와 전동기를 놓고 현판을 '통일양수장' 이라고 걸었다.

「쇠찌르레기」에서 조류학자는 북조선에 서식하지 않던 찌르레기를 발견하고 남조선에도 서식하는지 알고 싶다. 연구자의 직감으로 새떼를 따라 예성강 하구까지 따라가다가 분계선 너머로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며 분계선 앞에서 울분에 젖는다. 원홍길은 손자(원창운)에게 북한 조류와 남한 조류를 합하여 통일을 맞아 〈조선조류지〉를 완성할 것을 유언으로 남긴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던 화자는 평양을 들썩이던 사건 하나를 떠올린다. 「쇠찌르레기」에서 친구의 서재에 머문 화자인 나는 조류학자 친구의 편지를 읽으며 이산가족의 괴로움을 피부로 느낀다. 이산가족이 천만 명이라는 사실에서 온 겨레의 쓰라림을 절감한다. 그러자 21살의 림수경을 맞이하던 평양의 물결이 떠오른다. 림수경이 탄 차가 평양의 대통로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있자 아파트의 여인들이 화분에서 생화를 꽃보라처럼 뿌리던 광경을 그리며 그것이 온 겨레의 소원임을 깨닫는다.

2. 북한 소설의 활용

1) 통일 문학을 위하여

통일교육에서 문학의 특장은 학습자들에게 거부감 없이 연합 전선을 형성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 작가 홍석중은 '그 어떤 화제가 입에 오르든 간에 우리가 수시로 절감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것이 바로 근 반세기의 분단과 격절도 우리 민족문학의 동질성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는 확신이였다(「내가 만난 황석영」, p.316)' 고 했다. 북에서도 남에서도 '소설동네' 라는 말을 쓴다는 것에 놀라고 기뻐하기도 했다고 회고한다. 즉 북이든 남이든 공통의 문학 유산을 누리고 있었다. 그것을 교과 내용과 체계로 담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 글의 앞에서 밝혔듯이 무관심이다. 대학생들은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자신과 무관하다고 보고 점점 관심을 놓아버리고 있다.[17] 다층적이고 복잡한 문제들과 얽혀 있겠지만 필요한

것은 교육적인 노출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슈와 편향을 넘어서 통일에 대한 관점을 견고하게 짚어내어 교육 속에 용해해야 한다.

2) 북한 문학 답사를 위하여

대학생의 통일과 북한 인식을 살펴보니 북한 사람들의 일상에 대한 인식은 깊지 않았다. 금강산에 다녀온 학생이라 할지라도 북한 지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 기나긴 분단 상황으로 인해 언제 한반도가 하나의 나라였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본고는 1990년 초에 발표된 북한 단편 작품을 통하여 북한 사람들의 일상에 접근하고, 특히 작품 속에 제시된 지명(地名)을 특화하였다. 바람의 딸들이 지구를 세 바퀴 반을 도는 중에도 북한은 제외되어 왔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우리가 북한을 방문하는 일은 쉽지 않다.

통일 문학교육의 한 방안으로 통일 주제를 다룬 작품들 예컨대 「쇠찌레르기」, 「림진강」 등을 펼쳐 놓고 작품 속에 등장한 장소를 견학하는 문학 답사를 진행해 보자. 여기에 『광장』, 「그 여자네 집」을 추가하면 남북한 학습자들에게 공통으로 흥미로울 것이다.

우선 「쇠찌르레기」에 등장한 함경도 덕천, 안주를 방문하고 례성강으로 간다. 그리고 모란봉에 올라 청암리 토성과 최승대를 밟아 보자. 그리고 림강으로 이동하면서 아호비령산 기슭에 오르고 양덕과 법동 지역에 가서 그 지역 음식을 맛볼 수도 있다.

그런 다음 학습자들은 분계선을 넘어 「그 여자네 집」에서 만득이와 곱단이가 만난 서울로 간다. 분계선에서는 「학마을 사람들」에서 학을 풀어준 장소를 찍고 가야 할 듯하다. 『광장』의 이명준이 머물렀던 거제도 포로수용소[18]까지 내려갈 수 있다.

V. 통일 문학교육의 방향

분단 70년을 훌쩍 넘어섰다. 70년은 한 인간의 전 생애에 이르는 시간이며 세대로는 두 세대에 걸친 긴 시간이다. 이 현실 앞에서 필요한 것은 관심 촉구와 정보 공유라는 주장을 이 연구에 담았다. 교육적 활용으로는 통일 주제 소설에 나타난 문학 답사를 제안하였다. 이 글은 이렇게 첨예한 논의를 대신하여 통일 문학교육을 위하여 북한 소설의 양상을 살펴보고 지역 정보를 활용

17) '무관심'은 대학생인 Z세대의 특징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하채현 외, 2019:89~90) 참조.
18) 일제강점기와 해방 및 전쟁 시기 감옥체험을 다룬 소설 속에 나타난 지명들을 찾아볼 수도 있다(양윤모, 2020).

하는 것에 만족하고자 한다.

통일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본고는 글쓰기 수업에서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학습자들이 '통일에 관심이 없거나 원하지 않는다' 는 주장을 하기도 하여 아이디어를 얻었다. 바로 연구자는 대학생의 인식도 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논의에 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 과정에서 북한 문학이 남한에 소개된 상황을 조사하였고 북한 소설에 담긴 북한 사람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계기를 만들었다. 학습자들에게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을 촉구할 문학교육의 한 방안으로 통일 문학 답사를 제안한 점도 의미가 있다.

이후 문학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쇠찌르레기」가 교과서에 담겨 있는 구체적인 양상을 살피고 「림진각」이 담길 교육 내용을 함께 고안한다면 본고의 주장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후속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1. 작품

림종상 외(1993). **쇠찌르레기 북한우수단편선 1**. 살림터.

2. 논저

강진구(1998). 1960년대 북한의 지식인 소설. 이명재 편, **북한문학의 이념과 실제** (pp. 297-324.). 국학자료원.

김미영(2015). 통일교육을 위한 문학교과서 개선방안 연구. **문학교육학, 47**, 49-84.

김미영(2016). 통일한국에 대한 문학교육의 대응. **문학교육학, 53,** 9-37.

김범수 외(2021). **2020 통일의식조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성수(2018). '코리아문학' 의 통일·통합 (불)가능성 : 남북 문학 교류의 역사와 과제. **통일과 평화, 10**(2), 5-38.

김영민·설성경(1998). 통일문학사 서술을 위한 단계적인 방안 연구. **통일연구, 2**(1), 161-202.

김재용(1994). 최근(1990년대) 북한 소설의 경향과 그 역사적 의미. **북한 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지성사.

유성호(2006). 문학 교육과 통일 교육 :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현대소설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통일교육연구소 논문집, 5**, 31~43.

양윤모(2020). 일제강점기 소설에 나타난 감옥체험 연구. **사회적질연구, 4**(4), 95-123.

양정임(2018). 통일시대 준비교육을 위한 문학작품 도입과 활용방안 : 고등학교 문학교과서를 중심으로-. **석당논총, 70,** 249-286.

이상일(2020). '남북한 공통국어' 교육 내용 선정의 쟁점과 과제 : 중등 문학교육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55**(3), 251-281.

조경덕(2013). 대학 교양 교육으로서 남북한 소설 읽기와 글쓰기. **국제어문, 57,** 467-490.

조명기(2005). 1950년의 북한 소설 :『나비』,『방임하지 말아야 한다』를 중심으로. 김중하 편, **북한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pp. 235-262). 국학자료원.

최미숙(2020). '남북한 공통국어' 과목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55**(1), 293-321.

최민(2020). 2000년대 북한 통일 소설 연구 : 『조선문학』에 나타난 통일 주제 소설들을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83**, 85-120.

최홍원(2019). 동질성과 이질성의 길항과 통일 문학교육의 도정 :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통해 본 통일 문학교육의 방향과 과제. **문학교육학, 62**, 41-87.

하채현 · 성경주(2019). 실용 학문 전공 Z세대 학습자를 위한 글쓰기 수업 사례. **한국융합인문학, 7**(3), 87-109.

홍용희(2010). 통일시대를 향한 문학적 도정. **통일시대와 북한문학** (pp. 331-366). 국학자료원.

뤼디거 프랑크(2019). **북한여행 : 유럽 최고 북한통의 30년 탐사리포트**, 안인희 옮김. 한겨레출판사.

[토론문]

「대학생의 통일인식 조사를 통해 본 통일 문학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

조경덕
(평택대학교 피어선칼리지 교수)

하채현 선생님의 논문, 「대학생의 통일 인식 조사를 통해 본 통일 문학교육의 필요성」은 대학생들이 북한과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다' 는 인식을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북한 문학 교육을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문학 교육 방안으로 통일 문학 답사를 제안하였습니다. 남북 분단 상황에서 통일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는 전제 아래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북한 문학 교육을 제시한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한 방안들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확하게 설명해주시면 더 설득력이 있는 논의가 되리라 판단합니다.

1.

논문에 쓰인 몇 가지 개념에 대해 더 명확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서론에 '북한 문학' 과 '통일 문학' 이라는 개념이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북한 문학' 은 북한의 문학 작품으로 이해되는데 '통일 문학' 은 그 개념이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북한 문학' 과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면서 통일을 지향하는 문학 혹은 통일을 주제로 한 문학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또한 '대학생의 인식도' 를 '지식, 인식, 태도' 로 나누어 살핀다고 하였는데 이 개념들의 의미가 본문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개념들의 의미와 이 개념틀이 논의에서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2.

3면에는 '통일 필요성에 대한 세대별 인식' 이라는 제목의 표가 있습니다. 본문의 설명을 보면 해당 표는 '19~29세' 연령대의 통일 필요성 인식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표의 제목을 그에 맞게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표의 수치와 본문에서 설명하는 수치가 다릅니다. 확인해주십시오. 한편 표에서 '통일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 두드러지게 높은 해는 2007년과 2018년입니다. 두 해 모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해입니다. 본문에서 이러한 지적 없이 2018년 이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고 설명하고 그 원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해의 특수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원인에 대한 더 정확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3.

통일 방안의 변화를 다룬 표부터 시작하여 설문 조사에 대한 응답표가 모두 영어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설문조사 문항에 포함된 주요한 문제의식은 "우리가 북한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 입니다. 그에 따라 "북한의 행정구역, 국가의 정식 명칭, 국가 최고 지도자, 북한 방문 바람 여부, 보도자료 검색" 등을 문항에 넣었는데 관련 항목이 문제의식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덧붙여 '대학생의 북한 정보' 를 묻는 문항에서 '북한 정상 명칭' 〉 '북한국가 명칭' 〉 '북한 지리' 순으로 응답을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이 북한 각 지역 정보에 둔감하다고 해석하였는데 이 항목들의 층위가 서로 비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즉 '북한 지리' 의 경우 "남한 기업이 상주하는 공단이 위치하는 곳" 혹은 "금강산이 위치한 도의 이름" 등으로 물어야 비교 층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5.

설문 조사 분석 결과, 구체적인 일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북한 지리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있는 점을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설문 문항과 더불어 그 상관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6.

논문에서 선택한 텍스트는 「쇠찌르레기」와 「림진강」입니다. 구체적 일상을 담고 있고 통일을

주제로 하며 남북한 지리 정보를 담고 있는 소설이라는 점이 선택 이유입니다. 이중 「림진강」의 지리 정보는 작중 배경을 이루는 장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임진강이 어디에서 발원하고 어디로 흘러가는가 설명하는 데서 등장합니다. 작품 자체의 실감을 느낄 수 있는 지리 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품 읽기의 마지막으로 답사를 제시해주셨는데 바랄만한 것이기는 하지만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육의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여 답사 이전에 지리 정보를 갖고 북한을 더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사회적질학회 2021년 상반기 학술대회(2021.6.4)
통일인식과 다문화 수용도를 통해 본 한국 사회의 질
제1부 학술대회 **주제발표_ 발표 02**

다문화 청소년의 내·외적 자원, 사회적 위축, 우울 간의 관련성 연구

천지은* · 박지선**

Ⅰ. 서 론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이동과 이주가 자유로워지면서 우리나라는 매년 다문화가정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특성을 지닌 인구로 구성된 다문화 사회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전체 혼인 대비 다문화 혼인의 비중은 2015년 7.4%에서 2019년 10.3%로 조금씩 증가하여 2010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다문화 출생 역시 2015년 4.5%에서 2019년 5.9%로 증가 추세이다(통계청, 2019). 이 같은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인해 결혼이주여성, 이민자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다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수용과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은 언어 문제, 학교폭력, 편견, 이중차별과 같은 다양한 부적응문제를 경험하게 되며, 나아가 사회적 위축, 고립감, 우울 등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Khanlou et al., 2008). 다문화 학생 수의 경우 초·중등학교 147,378명으로 전체 학생의 2.8%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7.4% 증가하였고, 고등학교의 경우 전년 대비 11.1%가 증가한 12,478명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9). 상대적으로 다문화 아동에 비해 청소년의 수가 적은 편에 속함에 따라 교육 및 복지의 주요 대상으로서 관심을 덜 받았으며(유근화 · 신현태, 2016),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박근영 외, 2013; 손신영, 2019). 그러나 앞으로 청소년기로 진입하게 될 학생 수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 심리적 발달과 건강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 조성

* 중부대학교 학생성장교육혁신원 교수 / 주저자.
** 우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 교신저자. lundy@daum.net

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정과 우울은 높은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며(임혁, 2010; 조인주 · 현안나, 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 역시 한국인 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우울, 불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Whaley & Francis, 2006; 남윤주 · 이숙, 2009; 강현주 외, 2018). 부모의 문화와 한국 문화가 달라 경험하게 되는 이중문화는 사회적 정체성 혼란이나 충돌을 가져와 다문화 청소년을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언어발달의 저하로 인한 학습부진 역시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또래 간의 따돌림, 학교생활 부적응, 교사와 친구 등 대인관계 어려움 등의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확인하는 것은 이들의 취약한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와 대안을 마련하는데 필수조건이 된다 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결혼이주여성의 우울,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차별, 부부간의 의사소통 등 주로 부부와 가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조인주 · 현안나, 2012: 이은진 · 이교일, 2014). 다문화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학교폭력, 자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점차 확대되었다. 다문화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적응, 발달상의 어려움(Kimayer, 2012), 낮은 자아존중감(이광성, 2012), 정신건강 문제(임소연 · 박민희, 2014), 자살 문제(전경숙 · 송민경, 2011; 오승환, 2016), 타문화에 대한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김정민 외, 2015) 등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이러한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 사회 심리적 부적응문제 등을 감소시키고 효과적인 발달과업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데 가장 필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완충하는데 효과적이며(Lakey & Orchek, 2011), 특히 차별과 편견, 소외와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다문화 청소년이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원영 · 김경식, 2020). 즉, 부모, 가족, 친구, 교사 등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다문화 청소년과 타인과의 친밀감 및 상호 유대감 형성은 물론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불안과 소극적 태도를 수반하는 사회적 위축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확인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울의 중재와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사회적 차별 또는 배제가 우울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지와 우울의 관련성과 아울러 사회적 위축의 증가는 우울의 증가를 가져오며 자아존중감이 향상될 경우 우울 정도는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박동진 · 김송미, 2021)를 고려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토대로,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과 사회적 위축, 그리고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을 내·외적 자원으로

구분하여 사회적 지지를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의 외적 자원으로, 자아존중감을 내적 자원으로 구성하여 각각의 구성요인과 사회적 위축, 우울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외적 자원인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내적 자원인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외적 자원인 사회적 지지는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다문화 청소년의 내적 자원인 자아존중감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다섯째,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은 우울에 영향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ulti-cultural Adolescent Panel Study: MAPS) 6차년도(2016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는 2011년도부터 다문화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여 매년 실시된 대표성 있는 종단조사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이 조사는 2011년 최초 당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 청소년 1,635명과 학부모 1,625명을 대상으로 구축되었으며, 동일한 대상을 후기청소년기까지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조사대상은 층화임의추출법을 적용하여 추출된 표본학교별로 확률비례추출법을 적용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선정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배경특성을 비롯하여 학교생활, 심리사회적응, 신체발달, 부모자녀관계, 정책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종합적 조사로 이루어졌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본 연구의 대상은 중학교 시기에 해당하는 6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 시기는 이전과는 다른 교육환경 및 새로운 관계 형성 및 적응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의 다문화 청소년들이 심리적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6차년도 조사에는 청소년 1,332명이 참여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검증에 필요한 응답 누락 사례를 제외하고, 총 1,263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6차년도(2016)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측정도구는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에서 변수별로 발췌, 수정한 후 최종 사용하였다.

1) 우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간이정신진단검사(김광일 외, 1984)에서 우울에 해당하는 13문항 중 이경상 외(2011)가 수정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10문항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기운이 별로 없다', '외롭다',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및 수량화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는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0.905이었다.

2) 사회적 위축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선희·김경연(1998)이 개발하고, 이경상 등(2011)이 수정 보완한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가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다른 사람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수줍어 한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 한다' 등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및 수량화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까지 4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0.908이었다.

3) 사회적 지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는 한미현과 유안진(1996)의 조사에서 사용한 사회적 지지 지각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의 3개 하위영역 총 13문항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 및 수량화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수준에 대한 지각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0.908이었다(부모지지 0.899, 친구지지 0.947, 교사지지 0.920).

4) 자아존중감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Coopersmith(1969)가 개발하고 오전영(1981)이 번안한 자아개념검사 사용한 박난숙, 오경자(1992)의 척도 중에서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4문항으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

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0.833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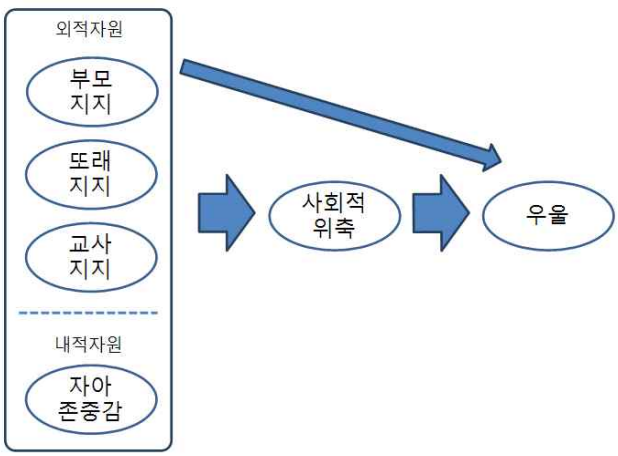
5)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성별과 거주지역을 통제변수로 이용하였다. 성별은 남성(1), 여성(0), 거주지역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을 연속변인으로 통제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결과는 SPSS 18.0과 AMOS 18.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첫째,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각 측정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구조모형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이 때 사회적 지지는 3요인 사교모형, 사회적 위축과 우울은 각 1차 요인모형으로 설정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각 측정척도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를 살펴봄으로써 척도의 내적정합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우울 등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넷째,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연구모형에 대한 데이터의 적합도와 변수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림 1〉 연구모형

연구모형에 대한 추정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d: ML)을 적용하였으며, 모형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합도지표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mation),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rker-Lewis Index)를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RMSEA는 .08 이하, CFI와 TLI는 .90 이상이면 적정모형으로 판단한다(Hu & Bentler, 1999). 연구모형의 표준화계수에 대한 유의성은 t값에 대한 절대값이 1.96 이상(5% 유의수준)일 경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았다(Peek, 2000).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인 다문화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다문화 청소년의 성별은 남성 619명(49.0%), 여성 644명(51.0%)으로 비슷한 분포로 나타났다. 연령은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15세가 1,126명(89.2%)으로 가장 많았고, 14세(95명, 7.5%), 16세(42명, 3.3%) 순이었다. 거주지역은 중소도시가 565명(44.7%)으로 가장 많았고, 읍/면 374명(29.6%), 대도시 324명(25.7%)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출신국은 일본(449명, 35.6%), 필리핀(317명, 25.1%), 중국 조선족(230명, 18.2%) 순이었으며, 아버지의 출신국은 한국(1,219명, 96.5%)이 대부분이었다. 이를 통해 이번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은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로 구성된 다문화가정 자녀가 대부분(96.5%)임을 알 수 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263)

변수	구분	빈도	%	변수		구분	빈도	%
성별	남성	619	49.0	부모의 출신 국가	母	한국	40	3.2
	여성	644	51.0			중국(한족, 기타민족)	83	6.6
연령	14	95	7.5			중국(조선족)	230	18.2
	15	1,126	89.2			베트남	34	2.7
	16	42	3.3			필리핀	317	25.1
거주 지역	대도시	324	25.7			일본	449	35.6
	중소도시	565	44.7			태국	49	3.9
	읍/면	374	29.6			기타	61	4.8
부모의 외국인 여부	아버지	40	3.2		父	한국	1,219	96.5
	어머니	1,219	96.5			중국(한족, 기타민족)	2	0.2
	두분모두 외국인	4	0.3			중국(조선족)	1	0.1
						베트남	2	0.2
						필리핀	5	0.4
						일본	17	1.3
						태국	1	0.1
						기타	16	1.3

2. 주요변수의 타당도 및 평균점수

주요변수의 타당도와 평균점수 산출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부모지지(7문항), 친구지지(3문항), 교사지지(3문항)를 사교모형으로 설정하고,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χ^2(df)=602.707(62), CFI=0.964, TLI=0.955, RMSEA=0.083으로 통계학적 허용수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지지 평균점수는 42.84점(표준편차 6.24, 범위 15~54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존중감(4문항)을 1차 요인모형으로 설정하고,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χ^2(df)=1.204(1), CFI=1.000, TLI=1.000, RMSEA=0.013으로 통계학적 허용수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아존중감 평균점수는 12.56점(표준편차 2.20, 범위 4~16점)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위축(5문항)을 1차 요인모형으로 설정하고,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χ^2(df)=26.126(3), CFI=.995, TLI=.982, RMSEA=.078로 통계학적 허용수준을 충족시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위축 평균점수는 11.65점(표준편차 3.65, 범위 5~20점)으로 나타났다. 넷째, 우울(10문항)을 1차 요인모형으로 설정하고,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한 결과, χ^2(df)=427.938(31), CFI=0.940 TLI=0.913, RMSEA=0.101로 통계학적 허용수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울의 평균점수는 17.10점(표준편차 5.36, 범위 10~40점)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변수의 타당도 및 평균점수 산출결과

주요변수	타당도				Mean±SE (range)
	χ^2(df)	CFI	TLI	RMSEA	
사회적 지지	602.797(62)	0.964	0.955	0.083	42.84±6.24 (12~54)
자아존중감	1.204(1)	1.000	1.000	0.013	12.56±2.20 (4~16)
사회적 위축	26.126(3)	0.995	0.982	0.078	11.65±3.65 (5~20)
우울	427.938(31)	0.940	0.913	0.101	17.10±5.36 (10~40)

3.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주요변수 간 관계를 알아보고자 피어슨(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다음의 〈표 3〉과 같이, 모든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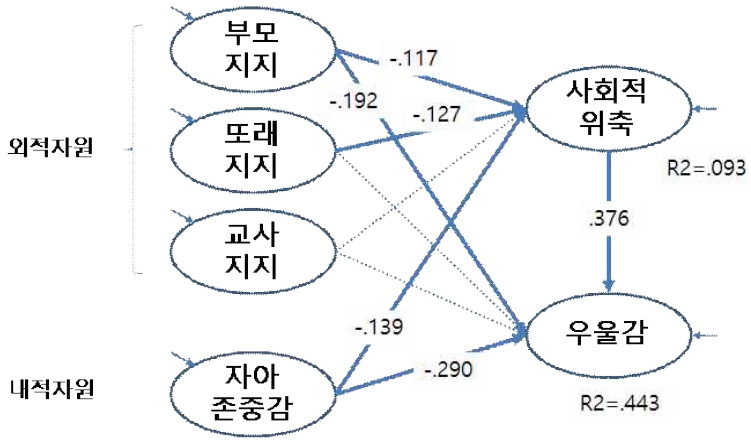
〈표 3〉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1. 부모지지	1					
2. 친구지지	.438***	1				
3. 교사지지	.401***	.593***	1			
4. 자아존중감	.459***	.538***	.443***	1		
5. 사회적 위축	-.224***	-.269***	-.184***	-.342***	1	
6. 우울	-.381***	-.349***	-.269***	-.448***	.506***	1

*p<.05, **p<.01, ***p<.001

4. 연구모형 검증결과

다문화 청소년의 내·외적 자원이 사회적 위축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 확인 및 변수 간 관련성을 〈그림 2〉와 같이 살펴보았다.



n=1269 x2(df)=1760.071(462) CFI=.952 TLI=.945 RMSEA=.047

〈그림 2〉 연구모형 검증결과

먼저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모형적합도 지수는 x^2(df)=1759.527(462), CFI=0.952, TLI=0.945, RMSEA=0.047로 모형의 적합도가 통계학적인 허용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었다.

다음으로 변수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모형의 모수추정치 확인 및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

한 결과, 첫째, 외적 자원인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위축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지지 및 또래지지에서 사회적 위축으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각각 -0.117(p<.05), -0.127(p<.05)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교사지지에서 사회적 위축으로 향하는 경로계수(0.031)는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내적 자원인 자아존중감에서 사회적 위축으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0.139(p<.05)로 통계학적 유의미성이 확인되었다. 셋째, 사회적 지지에서 우울로 향하는 경로에 있어서 부모지지에서 우울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0.192(p<.05)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 우울에 대한 또래지지(-0.063)와 교사지지(0.031)의 경로계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자아존중감에서 우울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0.290(p<.05)으로 통계학적인 유의미성이 확인되었다. 다섯째, 사회적 위축에서 우울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376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의 설명력은 44.3%였다.

결과적으로 부모지지, 또래지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이 낮아지고, 이러한 사회적 위축은 우울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지지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6차년도(2016)의 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내·외적 자원이 사회적 위축,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외적 자원인 사회적 지지 중에서 부모지지와 또래지지는 사회적 위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가까운 사람들의 지지를 통해서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취하게 하는 것으로, 특히 청소년기의 경우 또래의 지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래지지는 우울, 불안, 정서적 고립 등의 문제를 완화하고, 사회적 위축을 감소시킨다는 선행연구결과(Rubin et al., 2010)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관계에서의 자연스럽지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는 상호작용의 기회를 박탈하고 그로 인해 사회성 발달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부모가 보이는 사랑, 관심을 통해 자녀와 상호 신뢰감을 형성하고 의사소통을 지속해 나간다는 점에서 부모, 친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들이 학교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를 갖춰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내적 자원인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위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청소년은 이중문화로 인한 언어능력 발달 저하, 한국문화 및 가치관, 습관 등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경험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다문화 청소년들이 자신감이 결여되고 이는 결국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는 사회적 위축에 빠지도록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자아존중감이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지속된다는 점에서 성장과정에서 복합적인 부적응문제를 경험하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차별, 편견, 갈등관계에서 벗어나 상호 간의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 지지 중에서 부모지지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지지, 교사지지는 우울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지지가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손신영, 2019). 이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 내에서의 지지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가정에서의 자녀와의 대화나 소통, 교육 등에서 갈등유발요인을 줄일 수 있는 부모교육이 다문화 청소년의 발달과정에 적합하게 계속해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지지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은 결과는 선행연구결과와 반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문화 청소년들이 학령기에 진입함에 따라 교사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이나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가정을 벗어나 가장 먼저 접하는 교육의 장인만큼 다문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교사 대상 교육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질적으로 성장하며, 이들의 심리적 안정과 학교적응에 교사지지는 반드시 필요한 요인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넷째, 자아존중감은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반대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며, 낮은 자아존중감은 심리적 갈등과 스트레스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모국문화 또는 부모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다문화 수용성을 통해 심리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위축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신영(2019)의 연구에서 사회적 위축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사회적 소외감, 차별, 편견 등의 경험은 심리적, 정서적 고통을 유발하고 우울과 같은 부적응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특히 사회적 위축은 우울과 상호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울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지원하는 정책 마련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사회적 위축, 우울의 사회 심리적 부적응문제 간의 관련성을 구조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의 대표성 있

는 표본을 사용하여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보다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6차연도 자료를 분석한 연구로 주어진 변수를 통해 관련성을 검증한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매우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본 자료에 포함되지 못한 변수들을 분석에 활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도출된 다문화 청소년들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추가하여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우울과 자아존중감, 우울과 사회적 위축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시계열 분석을 통해 인과관계를 보다 분명히 규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이 중학교 2학년으로 이 대상에 대한 횡단분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학년 변화에 따른 종단적 변화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다문화 청소년의 시기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화도 및 과정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강현주 · 박현주 · 현혜진(2018). 다문화 청소년과 비다문화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 관련 요인 비교. **한국학교보건학회지, 31(3)**, 146-156.

교육부(2020). **2020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김원영 · 김경식(2020).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9(2)**, 125-150.

김정민 · 공보금 · 강제욱 · 문정준 · 전동욱 · 주현빈 · 이윤호 · 정도운(2015). 다문화 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의 정신건강비교. **소아청소년정신학회지, 26(40)**, 279-287.

남윤주 · 이숙(2009). 다문화가족과 한국인 부모 아동의 모애착, 자아개념, 일상적 스트레스, 우울 비교.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0(3)**, 357-367.

박근영 · 최유리 · 김보라(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2012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산업학회지, 7(1)**, 155-165.

박동진 · 김송미(2021).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우울이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보건과 복지, 23(1)**, 29-53.

손신영(2019).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20(3), 101-11.

오승환(2015).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6**, 1-27.

유근환 · 신현태(2016).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정책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례분석 중심으로. **공공정책연구, 33(1)**, 147-165.

이광성(2012). 다문화가정자녀의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44(1)**, 91-107.

이은진 · 이교일(2014). 다문화가정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생활만족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4(1)**, 27-54.

이지연 · 정익중 · 백종림(2014). 학교적응의 예측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아동학회지, 35(2)**, 1-23.

임소연 · 박민희(2014). 청소년의 건강행태와 정신건강: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비교. **한국자료분석학회지, 16(3)**, 1641-1651.

임혁(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4**, 189-221.

전경숙 · 송민경(2011). 다문화가정 자녀의 출신국적 배경에 따른 한국생활 적응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18(11)**, 305-330.

전수정 · 윤혜미(2013).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방임, 문화변용 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24**, 153-179.

조인주 · 현안나(2012). 결혼이주여성의 우울 영향요인들의 구조적 관계 분석: 문화변용과 적응과정 이론을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1)**, 177-206.

통계청(2019). 2019년 다문화 인구 동태 통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 **다문화청소년패널(MAPS) 1~6차 데이터유저가이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Beck, A, T. (2002). Cognitive models of depression. In R. L/leahy & E. T. Dowds (Eds.), *Clinical advances in cognitive psychotherapy: Theory and application* (pp. 29-61).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Khanlou, N., Koh, J. G., & Mill, C.(2008). Cultural identity and experiences of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of Afghan and Iranian immigrant youth.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and Addiction, 6*(4), 494-513.

Kimayer, L. J. (2012). Rethinking cultural competence. *Transcutural Psychiatry, 49*(2), 149-164.

Lakey, B., & Orechck, E. (2011). Relational regulation theory: A new approach to explain the link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Psychological Review, 118*(3), 48-495.

Peek, M. K. (2000).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rehabilitation research. *American Journal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79*(3), 301-309.

Rubin, K, H., Coplan, R. J., & Bowker, J. C. (2009).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 141-171.

Rubin, K, H., Roor, A. K., & Bowker, J. (2010). Parents, peers, and social withdrawal in childood: A relationship perspective.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27*, 79-94.

Whaley, A. L., & Francis, K. (2006). Behavioral health in multiracial adolescents: The role of Hispanic/Latino ethnicity. *Public Health Reports*, *121*(2), 169-174.

[토론문]

「다문화 청소년의 내·외적 자원, 사회적 위축, 우울 간의 관련성 연구」에 대한 토론

박범기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아동청소년상담복지과 주임교수)

1.

본 발제문의 대상인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연구에 대해 환영합니다. 발제문의 서론에서도 서술했듯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인 대응은 피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현재는 1990년대 산업연수생 및 결혼이주여성으로부터 시작된 다문화사회로의 진입단계로부터 3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즉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에서 전환단계를 거쳐 급속히 다문화 사회로의 정착단계로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문화사회의 정착단계에서 고심해야 할 주요한 사회문제는 이주민 2세의 정체성혼란, 그로 인한 사회의 갈등과 혼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시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내적자원인 자아존중감, 외적자원인 부모지지, 또래지지, 교사지지, 사회적 위축과 우울도 좋은 변수 선택이라 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지지는 기본적으로 다문화 청소년들의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며 친구지지와 교사지지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삶을 보내는 학교생활의 주요한 영향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적 위축은 본 토론자가 전술(前述)한 다문화 청소년들의 사회적 정체성을 맺는 데 일정부분 관련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우울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다문화청소년들의 정서적 상태를 보이는 대표적 변수입니다. 선행연구나 맥락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 간의 관계들을 살펴보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3.

본 발제문의 서론부터 결론까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론은 논문의 문제의식과 배경,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이 논리적으로 서술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발제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서론에서 다문화사회로 전환되는 한국사회의 현실과 이로 인한 사회현상으로서의 다문화 청소년의 문제를 기술하면서 발제문의 문제의식과 배경을 무난히 드러냈다고 봅니다.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서술하는 부분에서 주제의 핵심 변수인 청소년의 내·외적 자원, 사회적 위축, 우울의 관련성을 연구할 필요성과 목적도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분석해서 무난하게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제의 키워드변수들간의 관계성을 왜 더 연구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유기적으로 엮어서 보여주시면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성이 좀 더 명징해지리라 사료됩니다.

2) 발제문에 따로 이론적배경은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서론에서 이론적 배경에 해당하는 각 변수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론적 배경을 통해 각 변수의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를 정리해 지금까지 연구해온 기존결과들의 흐름을 알수 있고 그 연구들의 한계점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론적 배경은 '양적연구에 있어서 연구주제가 왜 기존의 연구와 차이점을 가지는가?' 에 대해 논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차후 연구논문으로 발전시키실 때 이론적 배경장(章)을 구성해서 논의해 주시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연구방법에서 분석자료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 6차년도 데이터자료〉사용해서 6차년도 패널대상인 다문화청소년 1263명을 연구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발제자들께서 설문지를 사용해서 일일이 설문조사를 하는 것보다 전범위에 해당하는 패널을 활용하신 것은 연구의 신속성과 편의성 및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라 사료됩니다.
측정도구도 주제의 변수에 맞게 패널데이터에서 추출해서 분석하셨습니다. 다만 우울이나 사회적 위축에서는 질문문항들을 일부라도 소개해주셨는데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측정도구에서는 질문문항에 대한 예가 전혀 없습니다. 서술의 통일성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측정도구에서도 질문문항의 예를 넣어 주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자료분석방법은 무난히 연구문제와 잘 매칭되게 서술하셨다고 생각합니다.

4) 분석결과의 서술도 연구문제와 자료분석방법의 순서와 일치되게 서술하셨습니다. 결과 4의 연구모형 검증결과의 [그림 2]를 보면 교사의 지지는 사회적 위축과 우울감과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래의 지지는 우울과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통상 청소년시기에 선생님의 지지는 청소년들에게 우울감을 낮추고 자신감을 높여 사회적 위축도 낮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욱이 청소년기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환경이 또래집단입니다. 이 또래와의 관계가 좋고 지지를 받는다면 상식적으로 우울감이 낮춰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본 발제문에서의 연구결과는 이런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왜 이런 연구결과가 나왔는지 토론자께서 이야기 해주시면 좋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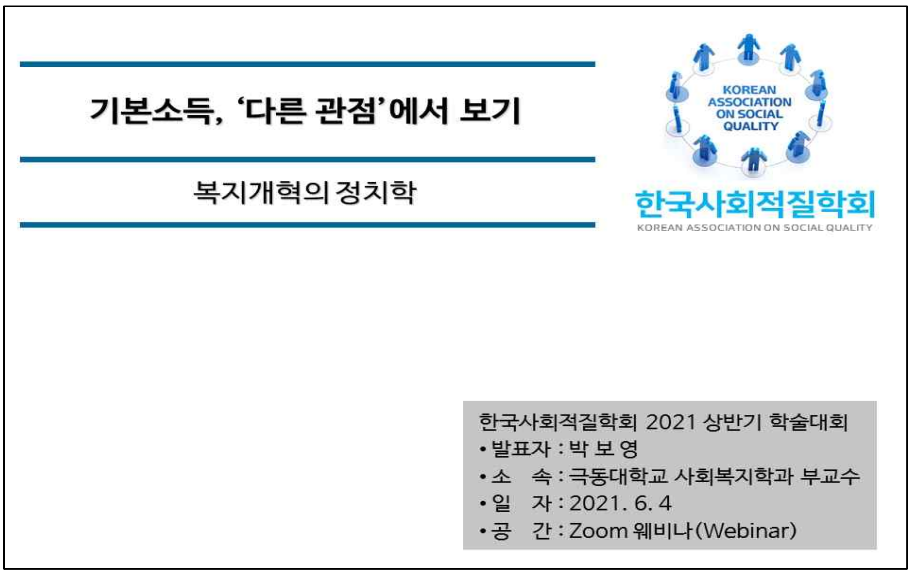
5) 결론 및 제언부분에서는 연구결과의 요약, 연구결과에 근거한 정책 및 프로그램 제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 발제문은 무난하게 결론 및 제언부분을 서술했다고 봅니다. 특히, 추후 종단분석 연구가 후속연구로 필요하다는 발제자들의 제언은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최근의 종단분석 연구들(양계민 외, 2012)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문화청소년이 비다문화청소년에 비해 학습활동과 교사관계에서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났지만 그런 현상은 저소득층 다문화청소년집단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즉 소득수준이 '중' 혹은 '상' 의 다문화청소년집단은 비다문화청소년집단과 비교해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선행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문화청소년들은 하나의 동질적 집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출신국, 소득수준, 부모의 학력 등 여러 면에서 매우 다른 집단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차후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종단분석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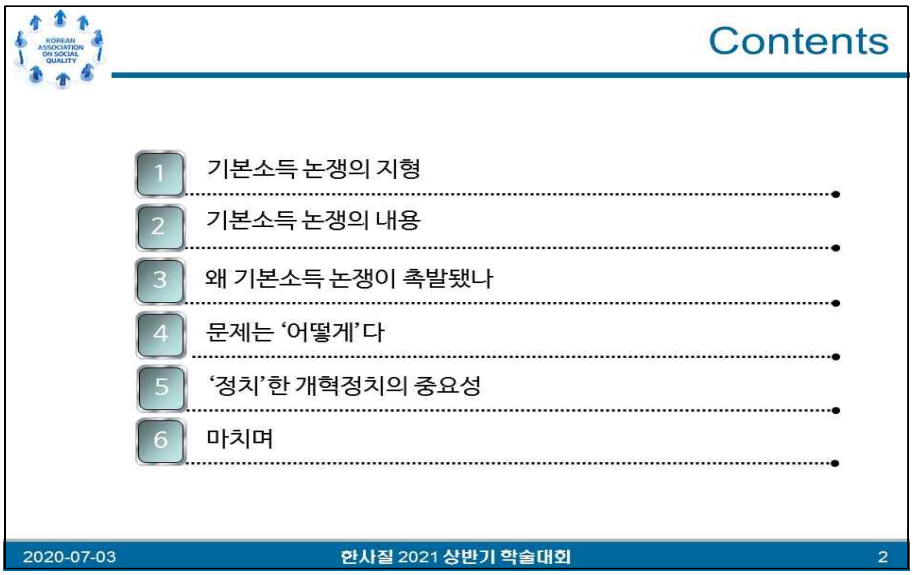
4.

본 연구의 대상과 주제는 상당한 연구가치와 시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론부터 결론까지 주제의 내용과 일관적으로 논의가 서술되었습니다. 다만 본 토론자가 상술(上述)한 부분들만 신경을 써서 차후 연구논문에 반영한다면 더 나은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제자분들의 연구에 대한 노고와 학술대회 때 발제하시느라 수고하신 부분 치하 드립니다.

기본소득 논쟁, '다른 관점'에서 보기
: 복지개혁의 정치학

박보영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0. 프롤로그

2020-07-03 한사질 2021 상반기 학술대회 3

1. 기본소득 논쟁의 지형

진보진영
Universal Basic Income

기본소득 도입론
(혁신적 복지국가)

소득보장 강화론
(사민주의 복지국가)

보수진영
Selective Basic Income

오세훈 서울시장(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 위촉식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심소득
(보수 버전의 기본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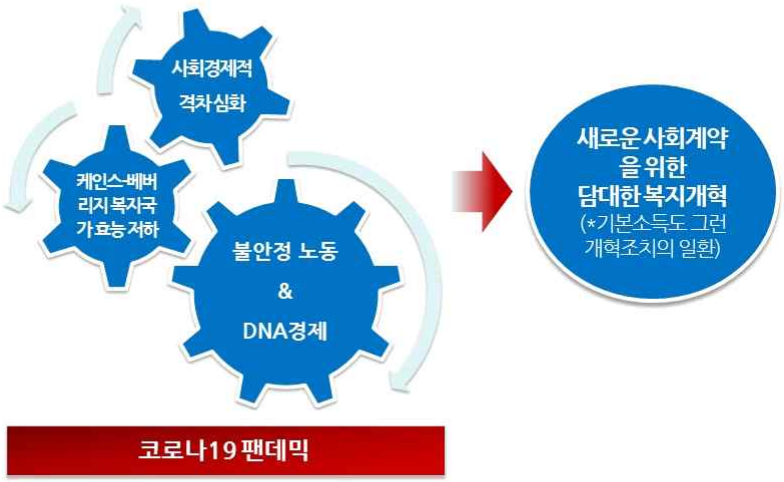
2020-07-03 한사질 2021 상반기 학술대회 4

2. 기본소득 논쟁의 내용

구분	진보 - 기본소득		보수 - 안심소득*
	기본소득 도입론(찬)*	소득보장 강화론(반)	
대상	보편	-	선별
방식	• 재산유무, 노동여부와 무관하게 국민 1인당 연 50만원 지원(*연 25조원 소요). • 매년 조금씩 횟수를 늘려 종국에는 매월 지급.	• 기본소득은 여타 소득보장 제도의 발전을 위축시킴. 부과방식(건강보험 방식)의 소득보장제도 확충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21년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약 6천만원). 중위소득에서 실제소득을 뺀 후, 그 차액의 50%를 차등 지원. • 소득이 없으면 연 3천만원 지급.
효과	※복지적 경제정책 • 총수요 진작 • 사각지대 해소 • 소득양극화 완화 • 불안정 노동 압박 경감	• '필요'에 기반한 보편주의적 복지국가 건설	• 하후상박 • 사회안전망 강화 • 사각지대 해소 • 소득양극화 완화
쟁점	• 재원 마련 - 증세 - 대통령의 예산 많지 않음	• 재정건전성 프레임의 덫	• 근로윤리 약화 • 복지이주 발생

2020-07-03 한사질 2021 상반기 학술대회 5

3. 왜 기본소득 논쟁이 촉발됐나



2020-07-03 한사질 2021 상반기 학술대회 6

4. 문제는 '어떻게'다

- 정부의 적극적 역할, 재정의 확대, 복지의 확충.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이같은 귀중한 교훈을 얻음.
  - "지나치게 적은 조치보다는 과도한 조치가 낫다. 중복지원이나 부작용을 감수하라. 이런 리스크는 많은 사람이 배제되는 데 따르는 리스크보다 훨씬 작다."

    Jason Furman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 교수)

-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논쟁이 치열한 듯 보이나, 원천적으로 기본소득제 자체를 반대하는 정치세력은 극히 드문 상황임.
  - 불안정 노동과 사회경제적 격차의 심화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 형성. 이를 구현할 복지개혁이 필요한 상황임.
  - 즉 기본소득제는 표피적 이슈이자 한 방편일 뿐, 본질(심층적 이슈)은 아닐 수 있음.

2020-07-03 한사질 2021 상반기 학술대회 7

4. 문제는 '어떻게'다

- 현실에선 개혁의 구상보다 '실행' 및 '구현'이 더 중요할 수 있음.
  - 개혁의 성패는 늘 '집행과정'과 '디테일'에서 갈렸고, 여기서 개혁 추진 세력의 실력이 드러났음.
  - 민주당의 '21.4.7 재보선 참패는 무능과 태도 때문이라는 진단이 있었음. 민생과 관련해서 집권여당으로서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 달라는 게 국민들의 바람임.

    (※엠브레인퍼블릭이 5.12~5.15, 만 19~54세 성인남녀 53명[8그룹] 대상 FGI 실시)

- 시민들은 내 삶을 변화시켜 줄 '효능감 있는 정치'를 원하고 있음.
  -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코로나 방역 등 국민안전'(33.4%), '부동산 시장 안정'(14.2%), '경기회복 및 일자리 창출'(13.8%) 등을 챙기길 원하고 있음.

    (※엠브레인퍼블릭이 5.22~5.26, 만 18~69세 성인남녀 2,000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 60% 이상의 시민들이 원하는 건 '안전'과 '안정', '회복' 등 민생 관련 이슈임.
  - 이렇게 볼 때, "노선이 문제가 아니라 태도와 능력이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음. 왜냐면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주요 현안들임.
  - 즉 시민들은 '성과를 내는' 정치를 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요컨대, '유능한 개혁정치'(*개혁은 민생의 필요충분조건)를 원함.

2020-07-03 한사질 2021 상반기 학술대회 8

5. '정치'한 개혁정치의 중요성

- **성공한 개혁의 필요충분조건인 '정치'(精緻)한 개혁은 '무엇'보다 '어떻게'에 주목해야 가능할 수 있음.**
  - **총론보다 '각론'**(*방법론으로서의 어떻게)**에 집중.**
  - **각론이 중요한 건 거기서 '노선'이 나뉘고 '정파'가 나뉘기 때문임**(김종배2021).
- **개혁은 본질적으로 '정치투쟁'일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제를 제기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의제를 얼마나 유능하게 다루냐임. 따라서 사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안을 다루는 실력이 중요함**(김종배2021).
  - **예컨대 민생문제라고 하더라도 '어떤 방향'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냐가 중요함.**
-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그간 한국사회에서 복지개혁을 비롯한 사회경제개혁이 성공적이지 못했던 건 "답을 잘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질문을 잘 하지 못해서"일 수 있음.**
  -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천착해야 함.**

2020-07-03 한사질 2021 상반기 학술대회 9

5. '정치'한 개혁정치의 중요성

- **왜 총선에서 유례 없는 압승을 거뒀던 집권여당이 불과 1년 만에 참패를 당했는지 생각해 봐야 함. 양상보다는 실상을 봐야 함**(천관율2021b;김종배2021).
  - **그보다는 사회경제개혁 프로그램**(포용적 복지, 중대재해처벌법, 손실보상제 같은 민생이슈 등)**을 통해 '안정적·개혁적 다수파 연합'**(*정치세력 간의 연정을 의미하지 않음)**을 엮어내지 못한 때문 아닌가?**
  - **개혁입법을 했다고 하는데 거의 누더기였음. 즉 총론과 각론이 제대로 일치된 게 거의 없었다고 보여짐**(*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예) 중대재해처벌법, 임대차3법, 재난지원금 등.
- **행정권력, 지방권력, 입법권력을 몰아준 시민들 입장에서는 집권세력에 대한 정치효능감을 상실할 수밖에 없음.**
  - **뚜렷한 개혁성과 없음 → 문제해결 능력 의문 → 무능**
  -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재정관료집단에 막혀 '확장 재정정책'을 펴지 못하는 모습은 매우 상징적.**

2020-07-03 한사질 2021 상반기 학술대회 10

5. '정치'한 개혁정치의 중요성

- 미국 정치학자 **샤츠슈나이더**(E.E. Schattschneider, 2008)**의 '갈등의 전국화'**(이른바 '1번 갈등' 또는 '지배적 갈등'의 발굴)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천관율 2021b).
  - 샤츠슈나이더는 "정치란 사회갈등을 폭넓게 조직하고 동원하고 **통합**하는 일"이라고 말함.
  - 특히, 갈등의 통합은 곧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가적 의제에 합의하는 것'을 의미함.
  - 이 과정에서 "사회경제개혁 프로그램을 통한 안정적 다수파의 형성"이 가능함.
  - 갈등의 통합은 **'갈등의 전국화'**(*숱한 갈등 중 1번 갈등을 정해 국가적으로 의제화하는 것)를 통해 가능함. 단, '1번 갈등'은 엄청나게 희소한 자원임에 유념하여야 함.

- 시민대중은 정치적 발언권은 약하지만 유권자 구성상 압도적인 숫자임. 따라서 **민생문제가 국가적**(전국적) **관심사가 되면, 정치가 시민대중을 위해 움직이게 됨.** 이것이 민주정 하에서 '정치=개혁=민생'이 작동하는 경로임.

2020-07-03 한사질 2021 상반기 학술대회 11

6. 마치며

- 기본소득 논쟁도 이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기본소득은 2022년 차기대선에서 1번 갈등(지배적 갈등)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정권재창출이냐 정권교체냐는 민생이슈(복지개혁의제)를 다루는 각 정치세력의 실력과 태도에 달려 있음.
  - 즉 대선정국에서 민생이슈(복지개혁의제)를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다루는 세력이 주권자들로부터 권력을 위임 받을 가능성이 큼.
  - 주권자인 시민들은 개혁이슈가 시민대중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도록 각 정치세력의 실력과 태도(*정치한 정치력)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

2020-07-03 한사질 2021 상반기 학술대회 12

0. 에필로그

- **정책실험과 정책믹스**(Policy mix)
  - **지자체는 정책실험 및 정책믹스의 최적화된 행위자임.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자료 -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2021.5.27. 2:52)

0. 에필로그

- **낙수효과**(trickle-down) **및 재정적 보수주의와의 결별**
  - **미국 바이든**(J. Biden) **대통령 "낙수효과, 단 한 번도 작동 안 해."**
  - **2021.4.28. 취임 100일 의회연설에서 '서민·중산층 위한 경제성장'**(분수효과) **강조.**

자료 - https://www.nocutnews.co.kr/news/5544379 (2021.5.27. 18:42)

0. 에필로그

-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행복추구권'이 보장되는 나라

1. 보육과 교육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나라
2. 장수가 축복인 나라
3. 가난이 장벽이 되지 않는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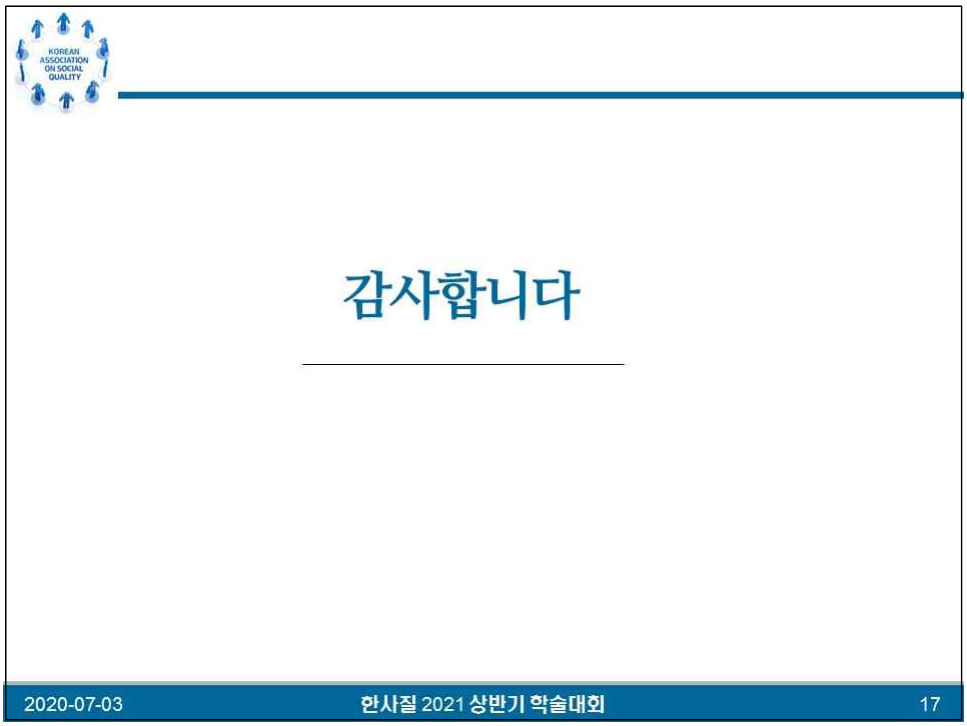
자료 : JTBC 차이나는 클라스 (2017.3.26)

참고문헌

- 김종배(2021). [천기누설] 50화 : 민주당의 혁신, 방향이 아니라 능력이 문제다. **MBC라디오**(2021.4.13).
  - https://www.youtube.com/watch?v=Oo2qJo6ULFQ (검색일: 2021.4.14. 16:41)
- 박보영(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사회보호 시스템의 개혁 과제와 전략. **사회적질연구, 5**(1), 1-37.
- 박보영(2020). The political efficacy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community welfare: A cost-efficient social innovation. *Korean Journal of Converging Humanities, 8*(2), 115-147.
- 양재진(2020). **복지의 원리**. 한겨레출판.
- 천관율(2021a). '이건희 손자 공짜 급식'과 재난지원금의 차이. **시사IN, 697**(2021.1.26).
- 천관율(2021b). '실종된 정치'에 심판하는 주권자들. **시사IN, 709**(2021.4.20).

- 닉 서르닉(2020). **플랫폼 자본주의**, 심성보 옮김. 킹콩북.
- 아누 파르타넨(2017). **우리는 미래에 조금 먼저 도착했습니다**, 노태복 옮김. 원더박스.
- 제이슨 퍼먼(2020). 사람이 먼저, 경제는 그 다음. 리처드 볼드윈 외 엮음, **코로나 경제 전쟁**, 매일경제신문사.
- 크리스티 앤더슨(2019). **진보는 어떻게 다수파가 되는가 : 미국의 뉴딜연합, 1928-1936**, 이철희 역. 후마니타스.
- E. E. 샤츠슈나이더(2008). **절반의 인민주권**, 현재호·박수형 옮김. 후마니타스.

- 경기도청 YouTube(2021.2.2). 90초면 뚝딱!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방법.
  - https://www.youtube.com/watch?v=IV9Eqi3-9PM (2021.5.27. 3:09)
- 노컷뉴스(2021.4.29). 바이든 "낙수효과, 단 한 번도 작동 안 해".
  - https://www.nocutnews.co.kr/news/5544379 (검색일: 2021.5.27. 18:42)
- 한국일보(2021.5.25). "걸과 속 다른, 무능한 중년 남성"... 민주당 이미지 1년 만에 곤두박질.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52518220003306 (검색일: 2021.5.26. 2:38)


KOREAN ASSOCIATION ON SOCIAL QUALITY
감사합니다
2020-07-03
한사질 2021 상반기 학술대회
17

[토론문]

「기본소득 논쟁, '다른 관점'에서 보기」에 대한 토론

서경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안전본부)

1.

지난 5월 28일부터 사흘간 이재명 경기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본소득을 놓고 SNS상에서 격렬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을 사회적으로 의제화시킨 장본인이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에 맞서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인 '안심소득'을 의제화시키고 있는 유력 정치인입니다. 두 사람은 여권과 야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기본소득-안심소득 논쟁은 세간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를 계기로 무상급식 때 일었던 '보편복지' 대 '선별복지'의 정책노선 대결이 다시 불붙는 모양새입니다. 2022년 차기 대선을 앞두고 복지논쟁이 불붙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소득과 안심소득 모두 막대한 재정소요가 예상되며, 때문에 증세 등 재원 마련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즉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의 시행에 앞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이고 안정적 시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는 한 번 시행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속성을 지닌다는 점에서도 재원조달책 등에 대한 꼼꼼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증세 등 재원 마련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본소득 및 안심소득은 '복지이슈'인 동시에 '정치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박보영 교수의 발표 「기본소득 논쟁, 다른 관점에서 보기」는 바로 이 점, 즉 기본소득의 복지정치적 측면에 주목한 발표입니다. 2022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상당한 시의성과 함의를 지닌 주제 선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에 대한 단순한

내용 정리 및 전달을 넘어 본질적 이슈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그것도 한국 복지학계에서 흔치 않은 접근법(정치사회적 관점)을 취하여 사안을 달리 보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박보영 교수의 관점은 "왜 기본소득 논쟁이 촉발됐나?" 라는 질문을 통해 집약되어 있습니다. 학술연구에 있어서 질문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실증하는 학술발표라고 생각합니다.

3.

본 토론자는 박보영 교수가 이 발표를 학술논문으로 발전시키고자 할 때 실질적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1) 좌파 버전의 기본소득이 되었든,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안심소득)이 되었든 기본소득 도입 자체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과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에 대한 발표자의 평가 내지 소회가 무엇인지요?

2) 발표자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담대한 복지개혁' 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기본소득이 그러한 담대한 복지개혁에 해당된다고 보는지요?

3) 발표자는 복지개혁이 성공하려면 '총론보다는 각론', '노선보다는 관리능력 및 집행능력' 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총론과 노선의 중요성을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닌지요?

4) 한국 복지확충의 주요 걸림돌 중 하나가 낙수효과와 재정적 보수주의를 신봉하는 경제관료집단이라고 지적하셨는데, 그래도 포퓰리즘을 막기 위해선 곳간 열쇠를 쥔 경제관료집단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아닌지요?

5) 2022년 차기 대선에서 기본소득이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 오세훈 시장에게 기본소득 논쟁이 정치적으로 어떤 득실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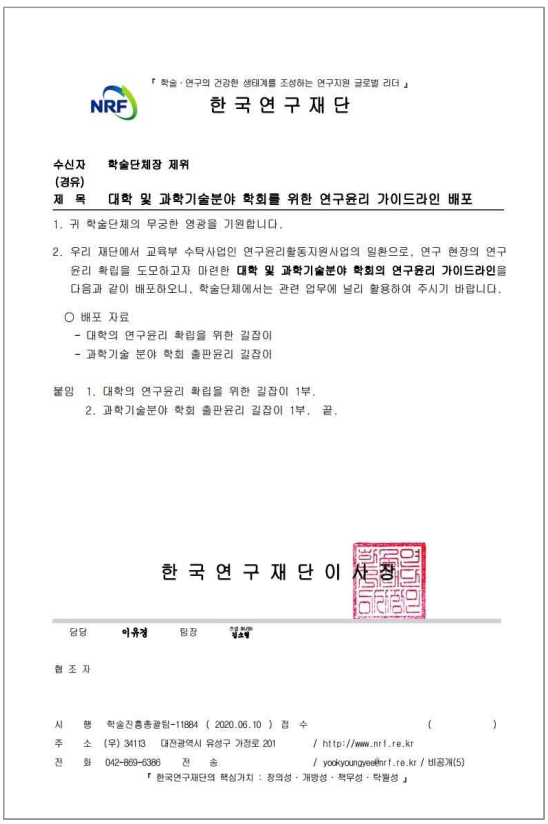
제2부 워크숍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WORKSHOP)

한국사회적질학회 2021년 상반기 학술대회(2021.6.4)
통일인식과 다문화 수용도를 통해 본 한국 사회의 질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관련 자료집 소개 (1)



「 학술·연구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연구지원 글로벌 리더 」

한 국 연 구 재 단

수신자 학술단체장 제위
(경유)
제 목 대학 및 과학기술분야 학회를 위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배포

1. 귀 학술단체의 무궁한 영광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재단에서 교육부 수탁사업인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연구 현장의 연구윤리 확립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대학 및 과학기술분야 학회의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배포하오니, 학술단체에서는 관련 업무에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포 자료
-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길잡이
- 과학기술 분야 학회 출판윤리 길잡이

붙임 1.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길잡이 1부.
2. 과학기술분야 학회 출판윤리 길잡이 1부. 끝.

한 국 연 구 재 단 이 사 장

담당 이유정 팀장

협 조 자

시 행 학술진흥총괄팀-11884 (2020.06.10) 접 수 ( )
주 소 (우) 341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 http://www.nrf.re.kr
전 화 042-869-6386 전 송 / yookyoungyee@nrf.re.kr / 비공개(5)

「 한국연구재단의 핵심가치 : 창의성 · 개방성 · 책무성 · 탁월성 」

한국사회적질학회 2021년 상반기 학술대회(2021.6.4)
통일인식과 다문화 수용도를 통해 본 한국 사회의 질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관련 자료집 소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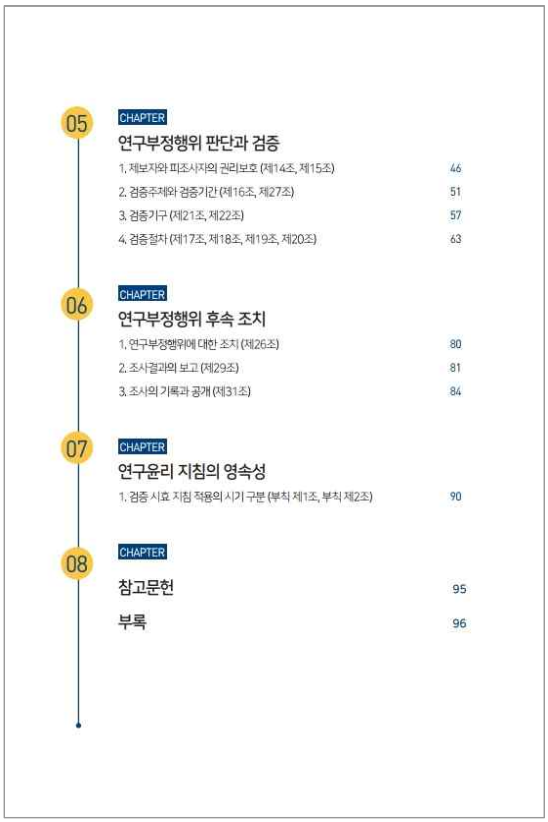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길잡이

01 CHAPTER 머리말
1. 이 책의 목적 06
2. 이 책의 구성 07

02 CHAPTER 연구윤리 지침의 목적과 정의
1. 지침의 목적 (제1조) 10
2. 지침의 정의 (제2조) 11
3. 적용 대상과 방법 (제3조) 16
4. 지침 적용의 범위 (제4조) 18

03 CHAPTER 주체별 역할과 책임
1.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제5조) 22
2. 대학의 역할과 책임 (제6조) 24
3. 자체 규정의 확립 (제9조) 29

04 CHAPTER 연구부정행위 정의와 범위
1. 연구부정행위 접수 및 처리 (제11조) 32
2.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제12조) 33
3.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제13조) 41



05 CHAPTER 연구부정행위 판단과 검증
1.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제14조, 제15조) 46
2. 검증주체와 검증기간 (제16조, 제27조) 51
3. 검증기구 (제21조, 제22조) 57
4. 검증절차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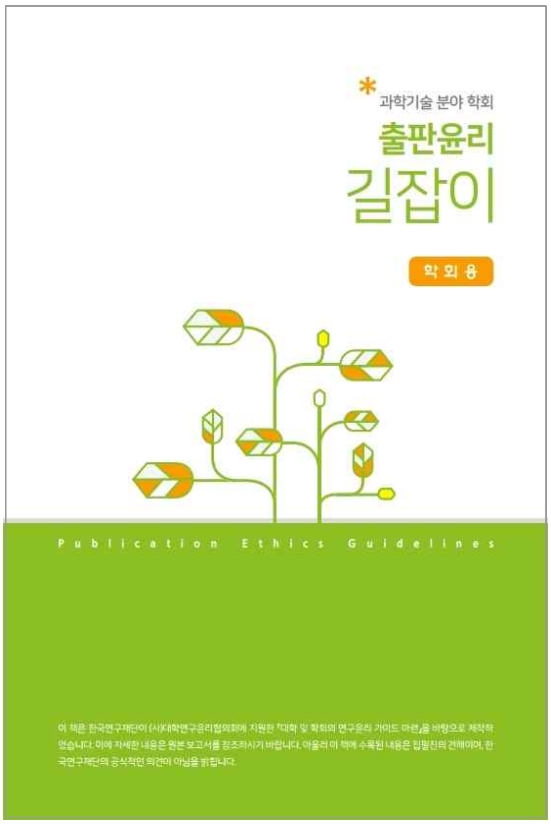
06 CHAPTER 연구부정행위 후속 조치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제26조) 80
2. 조사결과의 보고 (제29조) 81
3. 조사의 기록과 공개 (제31조)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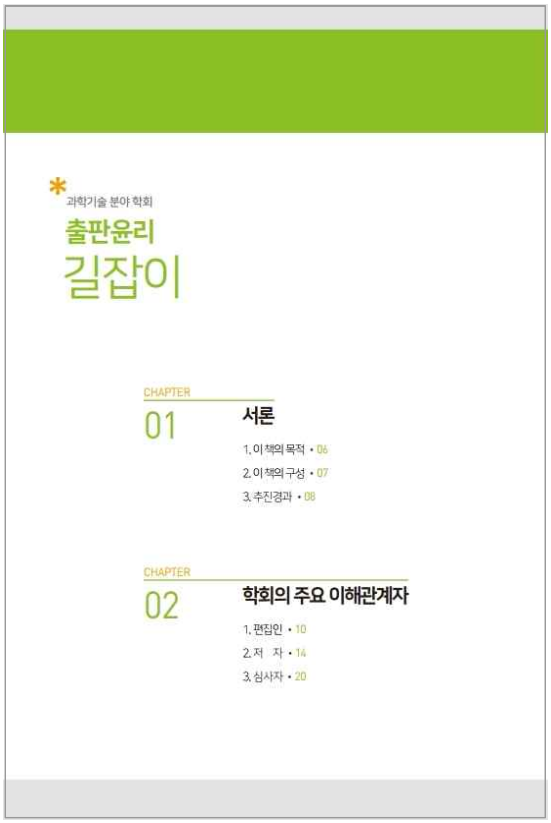
07 CHAPTER 연구윤리 지침의 영속성
1. 검증 시효 지침 적용의 시기 구분 (부칙 제1조, 부칙 제2조) 90

08 CHAPTER 참고문헌 95
부록 96

한국사회적질학회 2021년 상반기 학술대회(2021.6.4)
통일인식과 다문화 수용도를 통해 본 한국 사회의 질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관련 자료집 소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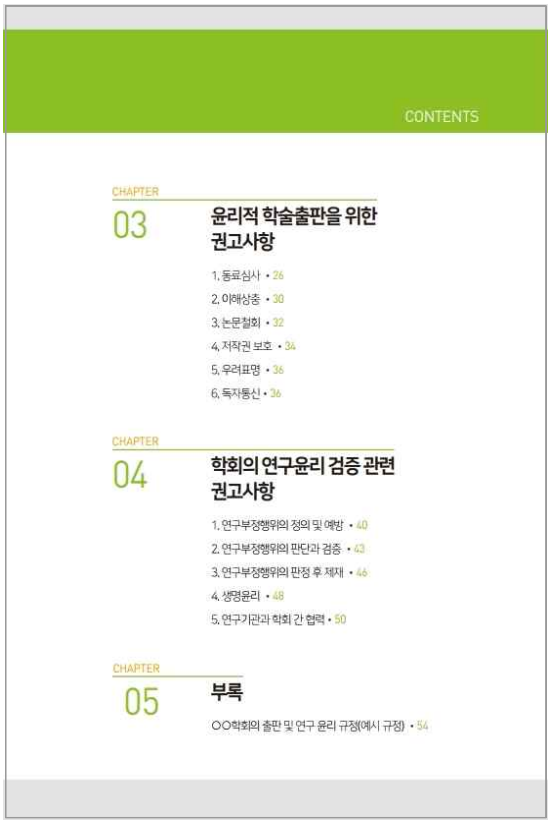




한국사회적질학회 2021년 상반기 학술대회(2021.6.4)
통일인식과 다문화 수용도를 통해 본 한국 사회의 질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관련 자료집 소개 (4)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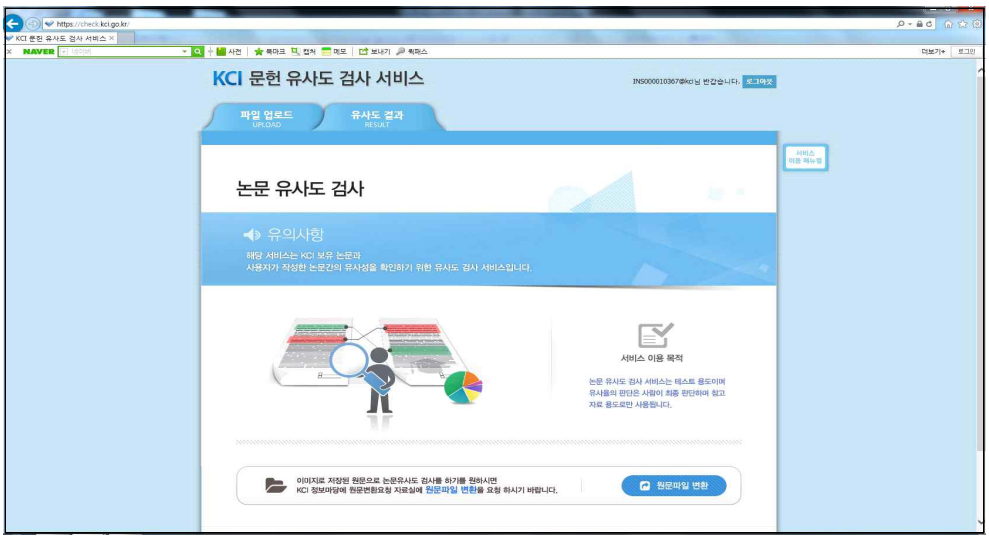
CHAPTER 03 윤리적 학술출판을 위한 권고사항
1. 동료심사 • 26
2. 이해상충 • 30
3. 논문철회 • 32
4. 저작권 보호 • 34
5. 우려표명 • 36
6. 독자통신 • 36

CHAPTER 04 학회의 연구윤리 검증 관련 권고사항
1.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및 예방 • 40
2. 연구부정행위의 판단과 검증 • 43
3.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후 제재 • 46
4. 생명윤리 • 48
5. 연구기관과 학회 간 협력 • 50

CHAPTER 05 부록
○○학회의 출판 및 연구 윤리 규정(예시 규정) • 54

한국사회적질학회 2021년 상반기 학술대회(2021.6.4)
통일인식과 다문화 수용도를 통해 본 한국 사회의 질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2.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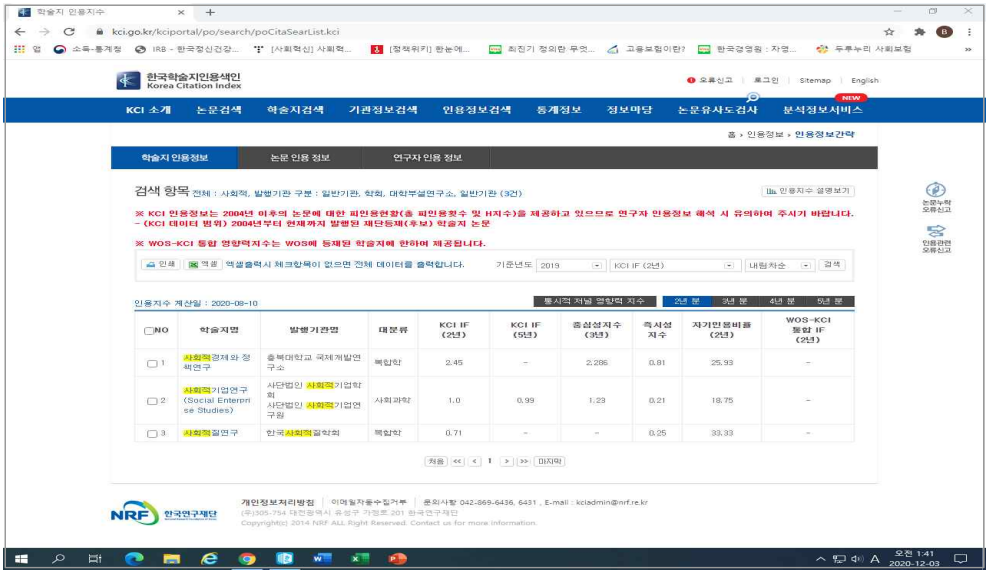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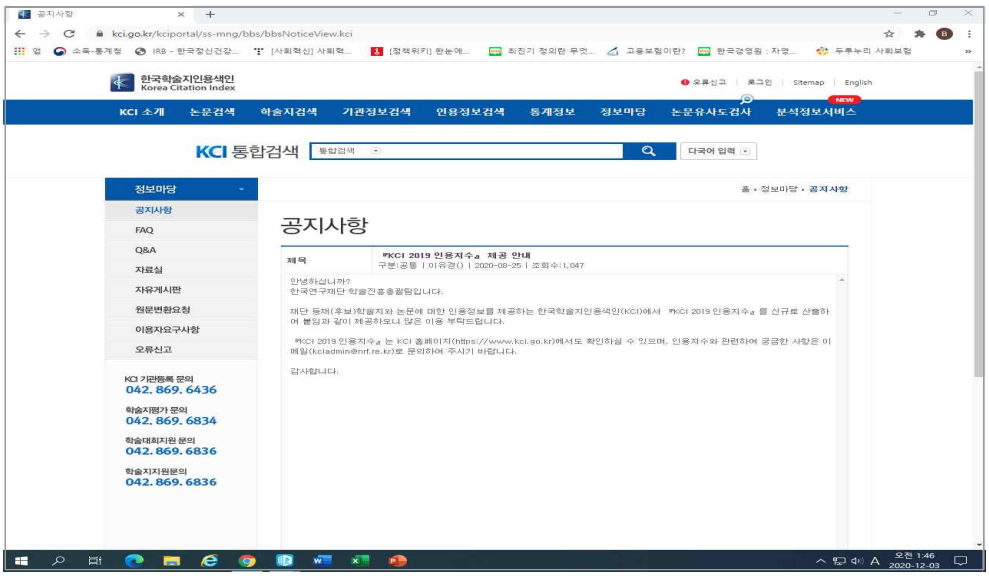
한국사회적질학회 2021년 상반기 학술대회(2021.6.4)
통일인식과 다문화 수용도를 통해 본 한국 사회의 질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2.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2)

한국사회적질학회 2021년 상반기 학술대회(2021.6.4)
통일인식과 다문화 수용도를 통해 본 한국 사회의 질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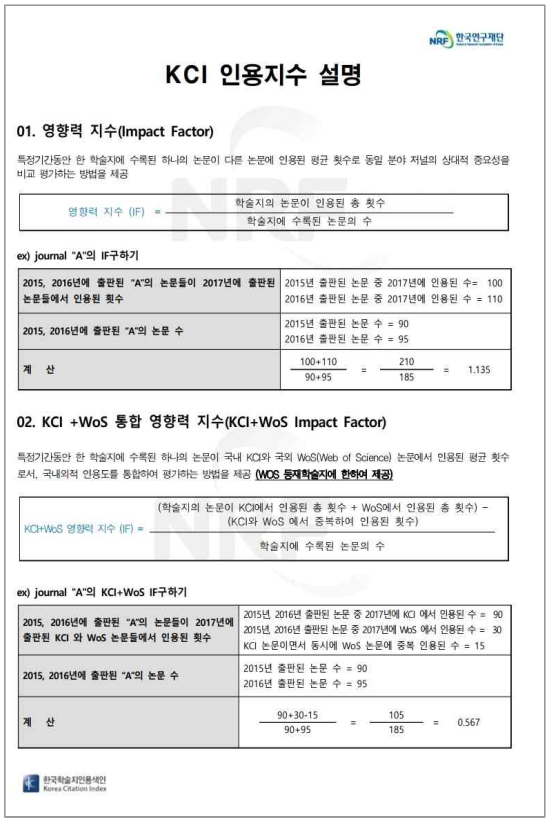
3. 한국연구재단 KCI 인용정보검색 및 〈KCI 인용지수〉 안내 (1)





한국사회적질학회 2021년 상반기 학술대회(2021.6.4)
통일인식과 다문화 수용도를 통해 본 한국 사회의 질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3. 한국연구재단 KCI 인용정보검색 및 〈KCI 인용지수〉 안내 (2)



KCI 인용지수 설명

01.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

특정기간동안 한 학술지에 수록된 하나의 논문이 다른 논문에 인용된 평균 횟수로 동일 분야 저널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 평가하는 방법을 제공

$$\text{영향력 지수 (IF)} = \frac{\text{학술지의 논문이 인용된 총 횟수}}{\text{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수}}$$

ex) journal "A"의 IF구하기

2015, 2016년에 출판된 "A"의 논문들이 2017년에 출판된 논문들에서 인용된 횟수	2015년 출판된 논문 중 2017년에 인용된 수= 100 2016년 출판된 논문 중 2017년에 인용된 수 = 110
2015, 2016년에 출판된 "A"의 논문 수	2015년 출판된 논문 수 = 90 2016년 출판된 논문 수 = 95
계 산	$\frac{100+110}{90+95} = \frac{210}{185} = 1.135$

02. KCI +WoS 통합 영향력 지수(KCI+WoS Impact Factor)

특정기간동안 한 학술지에 수록된 하나의 논문이 국내 KCI와 국외 WoS(Web of Science) 논문에서 인용된 평균 횟수로서, 국내외적 인용도를 통합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제공 **(WOS 등재학술지에 한하여 제공)**

$$\text{KCI+WoS 영향력 지수 (IF)} = \frac{\text{(학술지의 논문이 KCI에서 인용된 총 횟수 + WoS에서 인용된 총 횟수) − (KCI와 WoS 에서 중복하여 인용된 횟수)}}{\text{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수}}$$

ex) journal "A"의 KCI+WoS IF구하기

2015, 2016년에 출판된 "A"의 논문들이 2017년에 출판된 KCI 와 WoS 논문들에서 인용된 횟수	2015년, 2016년 출판된 논문 중 2017년에 KCI 에서 인용된 수 = 90 2015년, 2016년 출판된 논문 중 2017년에 WoS 에서 인용된 수 = 30 KCI 논문이면서 동시에 WoS 논문에 중복 인용된 수 = 15
2015, 2016년에 출판된 "A"의 논문 수	2015년 출판된 논문 수 = 90 2016년 출판된 논문 수 = 95
계 산	$\frac{90+30-15}{90+95} = \frac{105}{185} = 0.567$